

대한민국의 **돛** 통일한국의 **돛**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품고 있는 인천은
대한민국의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품고 있는 인천은 대한민국의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입니다.

굿모닝 인천

자유공원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높이 30.5미터, 둘레 4.7미터, 수령 131년으로 보호수로 지정됐습니다. 나무가 살아온 시간을 거스르면 인천 개항기와 맞닿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긴긴 시간 인천 앞바다를 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무는 우리네 삶과 역사가 깃든 '시간'의 흔적입니다.

06
JUNE
2016

- '인천 가치 재창조' 시리즈
그 여섯 번째, 플라타너스 보호수

수인선 협궤열차

김국환 노래

수인선 협궤열차 황혼길로 사라져가네

어천, 군자, 소래 열세 개의 간이역들

덜커덜덜커덜 바람과 얘기하며

조그만 창 너머 회색빛 바다소금

사라져가는 추억 속으로 그리움을 실어 나르네

올 때는 쓸쓸히 오고 갈 때는 더욱 쓸쓸히



‘수인선 협궤열차’는 노래 ‘타타타’로 유명한 김국환의 앨범 ‘아빠와 함께 두비두바’(1995년 5월)에 수록된 곡이다. 수인선은 1937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민족의 애환을 신고 수원과 인천을 오가던 열차로, 1995년 12월 31일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 ‘수인선 협궤열차’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그해 5월, 김국환이 아쉬움을 담아 부른 노래로 음률과 가사가 서정적이어서 옛 수인선의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한편 수인선은 2012년 ‘오이도~송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 수인선 ‘인천~송도’ 구간 역사(인하대·송의·신포·인천역)를 신설했다. 내년 ‘한대 앞~수원’ 구간을 마무리 하면 수인선 전 구간(52.8km)이 다시 열린다.

※‘인천 가치 재창조는 삶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굿모닝인천」은 올해 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인천의 노래’를 연재합니다.

CONTENTS

2016 JUNE | VOL.270
INCHEON MONTHLY MAGAZINE



08



12



24

06 나무 예찬 플라타너스 보호수

08 6월 보훈의 달 콜롬비아군 참전비

12 우리는 인천 시도 영전 사람들

18 스포츠 인천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20 기록관에서 꺼낸 역사 야구

24 여름밤 즐기기 반딧불이

28 포커스 한중지사성장회의

30 NEWS BRIEF

35 IMAGE NEWS

36 COUNCIL NEWS

38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인천대건고 편

44 6월의 문화 행사

48 박물관 이야기 고유섭 유품 전시

50 INFO BOX

57 인천 사는 이야기

58 모닝 커피 한잔 김민재 웹툰 작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바로북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 문의 032-440-8306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팀장) 사진 김성환·김상덕·류창현(자유사진가) 디자인 ㈜씨에디터
발행일 2016년 6월 1일 편집인 박현수(대변인) 취재 편집위원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타라티.피.에스



인천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두루미·장미·목백합



인천 시조(市鳥)
두루미



인천 시화(市花) 장미
인천 시목(市木) 목백합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홍보콘텐츠 블로그 '인천 에피소드&해피소드'
(blog.naver.com/happylong7)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flyic)
블로그(incheonblog.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y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incheon.city)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시민께서 인천시 120미추홀콜센터에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는 9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
시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주소지 관
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인천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천시는 일자리센터(JST일자리지원본부 1600-1982)를 통해 취
업의 문을 열어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 창업, 무료 교육, 창업 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인천에도 청소년을 위한 우울증 상담센터가 있나요?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468-9911)를 안내드립니다. 보건복
지부와 인천시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
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주에서 인천 연안부도로 관광을 가고 싶어요.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인천터미널에서 하차해 신세계백화점 정문 길 건너편 '신세계백화
점 정류장'에서 36번 버스 승차 -> 연안초등학교정류장 하차 ->
종합어시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터미널 관광안
내소 (435-7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도국제도시를 구경하는 시티투어버스가 있나요?
월미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순환하는 인천시티투어가 지난달 24일
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티투어는 월미·개항장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순환형 코스로, 이달 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갑
니다. 이 코스는 1일 1티켓으로 하루 동안 각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합니다.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따뜻한 고로케 같은 인천의 삶

저는 동구 금곡동에서 태어나 인천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인천 토
박이입니다. 그만큼 인천에 대한 애정이 큼니다. 우리 동네 만수동만
해도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도 잘 마련돼 있고 주거 환
경이 쾌적해서 살기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를 서울에
가린 주변도시 정도라면 여기는 일부 시선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런
중에 시 홍보 잡지 <굿모닝인천>이 도시의 유구한 역사와 발전상을
전하며 인천에 대한 도시 이미지를 높여 주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굿모닝인천>은 2년 전 지하철역에서 보고 바로 신청해 지금껏 즐겨
보고 있습니다. 인천에 살면서도 정작 모르고 지나친 역사, 문화, 관광
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인천 이야기
가 나올까' 매월 책이 나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기록관에서 꺼낸 역사'를 흥미롭게 읽고 있
습니다. 또 공공성을 띠고 있고 시민에게 시 정책을 알기 쉽게 전해주
는 것도 시민으로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최근 만수시장 입구에 가
게 '고로링 고로케'를 열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꿈꾸었던 창업의 꿈
을 이제야 이루었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며 제과제빵사로 살아온
세월이 17년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쌓아 온 손맛으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고로케를 빚어내겠습니다. 인천도 파이팅, <굿모닝인
천>도 파이팅, 저도 파이팅입니다.



독자 윤상진(43) 남동구 백범로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5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15

숫자로 보는 인천



길을 걷다 음반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며
'앨범을 살까말까'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걱정할 때가 있었다. 좋아하
는 곡이 나오면 가게 앞에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음악
감상에 젖기도 했다.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 발매일에 맞춰 아침 일찍
음반가게에 들르면 대형 브로마이드를 먼저 선점할 수 있었고, 친한
친구 생일에는 최신 노래 리스트를 만들어 음반가게에서 녹음을 하
기도 했다.

그러나 MP3가 대중화되고 테이프나 CD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음원
을 구입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음반가게를 찾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음반가게의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2014년 말 현
재 인천의 음반가게는 15곳으로 집계된다. 통계청의 사업체조사에 따
르면 인천시에 '음반 소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1994년 205곳, 1999
년 147곳, 2004년 51곳, 2009년 20곳, 2014년 15곳으로 음반가게 수
는 눈에 띄게 줄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때문에 앨범을 통째로 구입해야하나 고민했던
옛날과 달리, 지금은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원하는 노래를 언
제 어디서나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가끔은 공테이프를
사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녹음하거나 선물할 노래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 음반가게를 찾았던 추억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거리에
서 흘러나오는 '길보드 차트'로 음악을 들었던 그 시절이 말이다.

130여 년 인천 바다 지켜본 플라타너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자유사진가

인천 자유공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나무가 살아 온 시간을 거스르면 인천 개항기와 맞닿는다. 130여 년 동안이나 한자리에 뿌리내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발견'하다니... 나무는 세상의 시선 따위에는 관심 없다는 듯 담담하게 서 있었다. 이 나무는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지난 1987년 태풍 '헬파'가 불어 닥쳤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훗날 바다 경관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오래된 나무 대부분이 잘려나갈 때도 끝까지 살아남았다. 갓은 풍파를 겪어온 육중한 몸뚱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쓰다듬어본다. 아래에서 위로 고개를 움직이며 살아온 시간을 가늠해 본다. 몇 번을 올라다 보았는지 모른다. 긴긴 세월을 비밀스레 안고 있는 오래된 나무에도 새잎은 돋아나고 있었다. 햇빛의 농도가 쌓여가면서 싱그러운 잎사귀가 하늘을 덮었다. 유월 한가운데, 나이 든 플라타너스가 눈부시도록 질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1

2

1 그리워하여 당장이라도 달려갈 듯,
나무에 마음이 바다를 향해 뻗어 있다.
2 나무가 바라본 세상, 긴 세월 한 곳을
바라보며 나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Gracias Colombia!

감사합니다,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남미에 속한 국가다. 우리나라와는 거의 대척점에 있는, 머나먼 곳에 있다. 이 나라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돕기 위해 파병을 했다. 1950년 9월 18일 유엔에 프리깃함 1척을 주력으로 하는 해군 파병을 먼저 통보했다. 이어 11월 14일에는 1천 명 규모의 육군 1개 대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참전을 결정하자마자 미국식 장비로 재무장한 후 미 교관단으로부터 12주간의 교육·훈련을 받았다. 또한 189명이 탑승한 해군 프리깃함도, 한국 해역에 투입할 준비를 하기 위해 진주만에서 미 해군과 합동훈련에 나섰다.

1951년 4월 프리깃함 파딜라호가 한국을 향해 출항한 데 이어 1천여 명의 병력으로 편성된 1보병대대도 5월 21일 미국 수송선을 타고 콜롬비아를 떠났다. 이들은 1951년 6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한미 고위 장성 그리고 한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산에 입항했다. 육군으로는 UN군 중 마지막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이후에도 콜롬비아는 총 4회에 걸쳐 교대 병력을 합쳐 연인원 5천100여 병력을 한국에 파견했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침공으로 한반도는 전화(戰禍)에 휩싸인다. UN은 즉시 파병을 결정한다.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견했고 5개국이 의료지원을 했다. 모두 6대륙 21개국에서 전투부대 연인원 193만8천330명이 한반도로 건너왔다. 그들의 희생은 컸다. 6·25 전쟁 중 전사·실종은 4만4천786명, 부상은 10만4천280명에 달했다. 그중 낯선 나라의 병사들도 있었다. 먼 남미에서 온 콜롬비아 군인들이었다.

글 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콜롬비아는 총 4회에 걸쳐 교대 병력을 합쳐 연인원 5천100여 병력을 한국에 파견했다.

”

콜롬비아군은 6·25 전쟁 중 김화 400고지 전투, 연천 180고지 전투, 골모고지 전투 등에서 격전을 치렀다. 군율이 엄하고 용맹하기로 소문났으며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는 특유의 모토를 지켜 전투마다 혁혁한 전과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전 기간 중 전사 143명, 실종 69명, 포로 30명, 부상 567명 등의 고귀한 희생이 뒤따랐다. 휴전이 된 1953년부터 1954년까지는 유엔군 방어작전지역 경계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로 전국에 6·25 참전국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이 진행됐다. 인천에는 콜롬비아군 참전비 건립이 결정됐다. 그해 9월 24일 서구 가정동에 비 높이 10m, 기단 높이 2m의 콜롬비아군 참전비가 세워졌다. 매년 콜롬비아 독립기념일에 주한 콜롬비아 대사와 6·25 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회원들이 참석해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우리의 무심 속에 멀리서 불어온 서해의 바람을 맞으며 동상의 군인들은 인천을 굽어보고 있다. 낯선 땅에서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생명을 바친 그들의 고귀한 뜻이 비문에 몇 자 적혀 있다.

'카리브 바다의 정기를 타고난 콜롬비아 용사들! 국제연합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마침내 611명의 고귀한 생명이 피를 흘렸다. 우리는 그들을 길이 기념하고자 여기에 비를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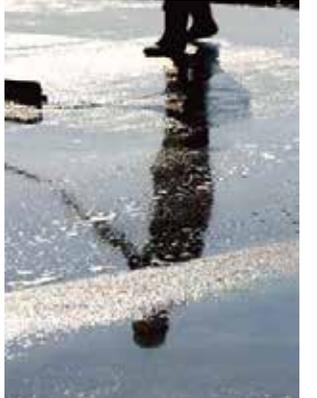
기다림 끝, 새하얀 꽃을_피우기까지

세상 어디에도 인천 같은 도시는 없습니다. 세계의 하늘 아래 긴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땅, 가깝고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168개의 섬. 하지만 무엇보다 인천을 빛나게 하는 건, 그 안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당신입니다.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너와 나 구분 없이 하나 되는 '우리는 인천'.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나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확인하고 내일을 그려 봅니다. 그 여섯 번째로 긴긴 시간의 땀방울로 순백의 결정체를 빚어내는 시도 염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유월 햇살 담백 먹고 자란 소금꽃

시간이 멈춘 듯 온 세상이 고요하다. 눈앞엔 네모 반듯한 소금밭이 수평선처럼 아득히 펼쳐져 있다. 신도, 시도, 모도 삼형제 섬이 손을 잡듯 다리모 이 어진 북도면. 둘째 섬 시도에는 새하얀 보석을 품은 염전이 비밀스레 숨어 있다. 인천에는 이곳 시도와 백령도, 강화 석모도에서만 새하얗게 소금꽃이 핀다. 바닷물은 오랜 세월 햇볕을 받아들이고 비와 싸우고 바람을 다독인 후에야 비로소 새 숨을 얻는다. 외딴섬 안에 다른 세상인 듯 펼쳐진 소금밭, 잠시 숨을 고르고 발걸음을 느리게 움직여 본다. 어제는 비가 부어내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머리 위에서 초여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소금 만들기 참 좋은 날씨다. 유월의 염전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릴' 만큼 바쁘다. 한여름보다 햇살이 다사롭게 내리쬐이지만 바람이 살랑하게 불고 습기가 적어 소금을 굵어모으기 좋다. 또 춥지도 덥지도 않은 기온이 짠맛과 쓴맛은 덜고 단맛을 더해 소금의 풍미를 높인다.

때마침 소금 창고에선 염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천일염을 자루에 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정성으로 빚어낸 육각형의 결정체를 음미해 본다. 달콤 짭조름한 바다 향이 입안에 파문처럼 번진다.



날카로운 띄약벌보다 두려운 ‘비몰이’

강성식(75) 할아버지는 16년 전 충남 태안에서 평택을 거쳐 시도로 왔다. 그는 내리쬐는 태양을 벗 삼아 평생 소금을 굽어오으며 살아왔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노장은 여전히 건재하다. 검게 그을린 탄탄한 두 팔로 연이어 삽질을 하며 20킬로그램짜리 자루에 소금을 척척 담아낸다. 내일 강화도로 보낼 소금이라고 했다. 건장한 청년도 금세 지칠 법한데, 힘든 기색은커녕 일하는 내내 얼굴에서 웃음꽃

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제 비가 안 왔으면, 지금쯤 밭에 소금이 수북이 쌓였을 텐데... 그랬다면 정신없이 바깥을 거야.” 시도 염전에는 강성식 할아버지와 함께 태안에서 온 매제 김순안(57) 씨, 윤정범(65) 씨, 나병만(51) 씨, 끝내 이름 밝히길 고사하는 한 명까지 모두 다섯 일꾼이 일하고 있다. 어제는 이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 하루였다. 오후 세 시쯤 됐을까,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후드득 빗발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우비를 챙겨 입을 튼도 없이 러닝셔츠 바람으로 소금밭에 뛰어들었다. 서둘러야 했다.



윤정범(위) 씨와 강성식(아래) 씨.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그저 하늘의 뜻에 맡기면 그만이다. 소금밭을 일구는 삶이 행복하다.

기다림도 행복인, 염부의 삶

고여 있는 바닷물에 순백의 꽃을 피우기까지는 꼬박 20여 일이 걸린다. 그 긴긴 기다림의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빗속을 뚫고 해주(海宙)에 소금물을 가두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염부들은 이 작업을 ‘비몰이’ 혹은 ‘비설거지’라고 한다. 날카로운 한낮의 띄약벌보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그들을 더 힘들게 한다. 그나마 요즘은 양수기로 물을 대 작업이 수월해졌지만, 15년 전만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릴없이 수차를 돌려야 했다. “새벽 두 시든 세 시든, 비가 오면 염전으로 바로 뛰쳐나가야 해요. 그럴 때가 가장 안쓰러워요. 한두 방울이라도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자다가도 놀라서 깨곤 해요.” 김순안(57) 씨의 아내 홍경신(48) 씨는 또 그대로 속병을 앓았다. 소금 만드는 일을 ‘하늘이 내리는 농사’라고 하지 않던가. 그날그날의 비바람과 햇살에 온 감각을 집중해야 하는 건, 염부의 아내로서 안고 살아야 할 숙명이다. 하지만 그는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더 크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날 염부들은 하루 일을 조금 일찍 시작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 했다. 어제 내린 비로 해주 안에 가둬놓았던 소금물을 결정지에 올리는 작업이 이른 아침부터 이뤄졌다. 염부 네 명이 꼬박 세 시간에 걸쳐 구슬땀을 흘렸다. 햇살이 살차게 쏟아지고 결정지가 뜨끈뜨끈하게 데워지면, 소금꽃이 활짝 피어날 테다. 이제부터 기다림의 시작이다. 염부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숙소 한편에 두런두런 모여 앉는다. 대충 송송 썰어 낸 썩떡 한 접시, 김치 한 보시기, 막걸리가 놓인 상이 금세 차려졌다. 술상이랄 것도 없이 조촐하지만, 육체의 고단함을 씻어 내기엔 충분하다. 막걸리 몇 순이 돌아 얼근얼근 취기가 오른다. 세상 고민이 무엇이라, 불그스름한 염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힘들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얼마나 재미있다고. 하늘의 뜻에 맡기면 그만이야.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또 쉬고, 그저 자연에 순응하며 마음 편히 사는 거야. 몸도 그리 고되지 않아. 이 봐. 이 나이에 얼마나 건강해.”



땀땀 땀방울이 흘러내릴 즈음, 새하얀 소금꽃도 수북이 쌓여간다.



햇살과 바람 머금은 순수하고 견고한 결정체.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비바람도 피약별도 아닌 사람이다. 작년 이맘때에는 일꾼 두 명이 갑자기 그만두어 132천231㎡(4만 평)에 이르는 염전을 단 두 사람이 책임져야 했다. 검게 그을린 팔뚝과 그 아래로 뻗은 두꺼운 손등이 그간의 세월을 짐작하게 한다. 할 아버지는 괜찮다지만, 소금보다 더 짠 땀을 흘려야 하는 ‘극한 직업’이다. 그래서 그는 2년째 곁에서 함께 하고 있는 후배 윤정범 씨가 형제처럼 각별하게 느껴진다. 올 3월, 염전으로 온 막내 나병만 씨도 애뜻하기는 마찬가지다. 일하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은 처음 봤다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윤 씨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정년퇴직 후 집에서 쉬려니 몸과 마음이 갑갑해 견딜 수가 없었다. 아직 한창때처럼 일할 자신이 있었다. 교편을 잡던 손으로 고무래를 들고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몸을 쓰다 보니 몸도 마음도 더 젊어졌다. 몸무게도 8킬로그램이나 줄었다. 나 씨는 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염부의 삶을 살게 됐다. 가족은 걱정했지만, 건강한 몸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시간의 땀방울로 빛은, 순백의 결정체

오후 다섯 시경, 기다리던 소금꽃이 무리 지어 피어나기 시작한다. 염부들의 일손도 다시 바빠진다. 아직 따가운 햇발 아래서 염부들이 소금을 정성껏 그러모은다. 바닷물 머금은 광산에서 고무래질을 거듭할수록 새하얗게 빛나는 보석이 쏟아져 나온다. 그 보석이 수북이 산을 이루자, 외발 수레에 그득 담아 창고로 옮기는 작업이 이어진다. 물에 흠뻑 젖은 소금은 한 수레에 90킬로그램이 넘는다. 결정지와 창고 사이를 수십 번 오가야 하지만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시간의 땀방울이 빚어낸 결정체가

허름한 창고에 소복소복 눈처럼 쌓여 간다. “이 섬에서 난 소금은 달고 맛있기로 유명해. 전국 각지 안 가는 데가 없어. 또 봐봐 얼마나 깨끗해, 사방이 자연이니, 불순물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이 땅 주인하고도 약속했어. 나 죽고 나서도 염전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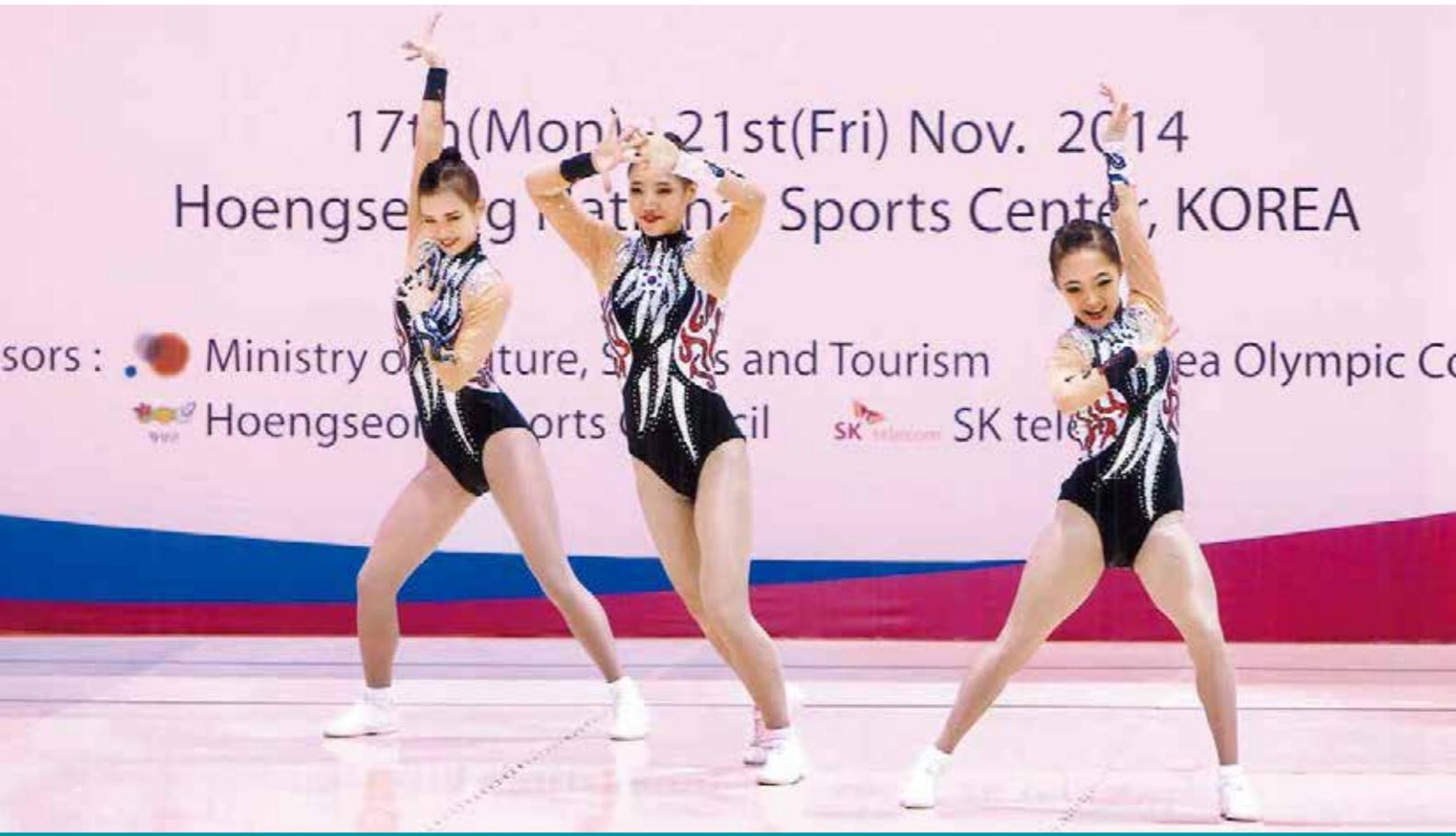
강성식 할아버지는 40여 년을 염부로 살아온 자신이 자랑스럽다. 건강하게 땀 흘려 육 남매 모두 대학에 보내 훌륭히 키워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왔다. 또 지금은 사라져가는 천일염 만드는 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 않는가. 평생 소금 밭을 일구느라 까맣게 그을린 할아버지가 소금꽃처럼 새하얗게 웃는다.

노을이 번지고 있다. 하얗게 빛나던 소금이 불그름히 물들어 간다. 염전에 고인 바닷물에도 노을빛 고운 하늘이 잠긴다. 그 위로 염부의 그림자가 일렁인다. 세상의 빛이 사그라져도 그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소금 만들기엔 집중했다. 송골송골 맺히던 땀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린다. 그 땀으로 빚어낸 결정체는 순수하고 견고하다. 뜨거운 태양을 등지고 칠십 평생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늙은 염부의 뒷모습처럼.

세계의 별들 인천에 뜬다

인천에서 세계적인 스포츠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2016 ITF인천국제여자챌린저테니스대회에 이어 이달엔 '제14회 FIG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와 '2016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FIG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대한에어로빅협회, 인천시탁구협회



세계 에어로빅 체조선수들의 최대 관심사인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는 국제 체조연맹(FIG)에서 주최하는 정기대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최초(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2016년 제14회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개최 도시로 확정돼, 다시 한 번 인천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며, 전 세계 50개국 1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는 주니어 2개 부문과 시니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부문별로 남·여 개별, 혼성 2인조, 3인조, 그룹(5인조), 에어로 스텝, 에어로 댄스 등 7개 종목이 진행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에어로빅협회는 지난 2월부터 135명의 기술임원과 78명의 운영요원, 그리고 경기진행과 통역을 맡을 자원봉사자 63명 등 총 276명의 대회운영본부를 구성해 행사를 준비해왔다. 인천시 역시 재난안전, 위생, 의료, 교통, 문화행사, 대회홍보 등 10개 분야에 걸쳐 대회지원단을 구성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최상의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남동체육관에서 제8회 대한에어로빅협회장배 전국에어로빅 체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가 열릴 남동체육관에서 동일한 종목으로, 사전대회 성격으로 치러졌다. 17개 시·도 7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진행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회 운영을 점검했다.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에어로빅 체조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인천이 국제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 세계 TV 및 인터넷, SNS의 실시간 중계를 통해 인천의 모습이 지구촌에 공개된다.

시는 이번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개최를 통해 세계 유수의 국가들 간 체육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간 우의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제14회 FIG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기간	6월 13일(일)~6월 19일(토)	대회 종목	7개 종목 (주니어 및 시니어)
개회식	주니어 : 6월 13일 오전 11시 시니어 : 6월 17일 오전 10시	남·여 개인, 혼성 2인조, 3인조, 그룹(5인조), 에어로빅 댄스, 에어로빅 스텝	
폐회식	6월 19일 오후 5시 10분	경기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결승전은 대부분 오후에 진행)
장소	인천 남동체육관	관람료	무료
주최/주관	국제체조연맹(FIG)/대한에어로빅협회	문의	시 체육진흥과 ☎440-4951~5
참가 규모	50개국 선수 및 임원 1천 명		

6월에 열리는 또 하나의 국제대회, '2016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2016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남동체육관에서 펼쳐진다. 29개국 197명의 국내·외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남녀 단식, 남녀 복식, 21세 이하 남자부 및 여자부 경기로 진행된다.

인천시는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를 지난 2010년부터 6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ITTF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 국제탁구연맹이 주최한 공식 프로투어 중 인천에서 열린 코리아오픈탁구대회를 가장 훌륭한 대회로 선정하기도 했다. 2014년도에는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가 최고 권위의 '슈퍼 시리즈' 대회로 격상됐으며, 상금과 월드랭킹 포인트가 높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다. 올해는 남녀 10위권 내 최강자들이 출몰한다.



2016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기간 6월 22일(수)~26일(일)
장소 인천 남동체육관
문의 인천시체육회 ☎899-5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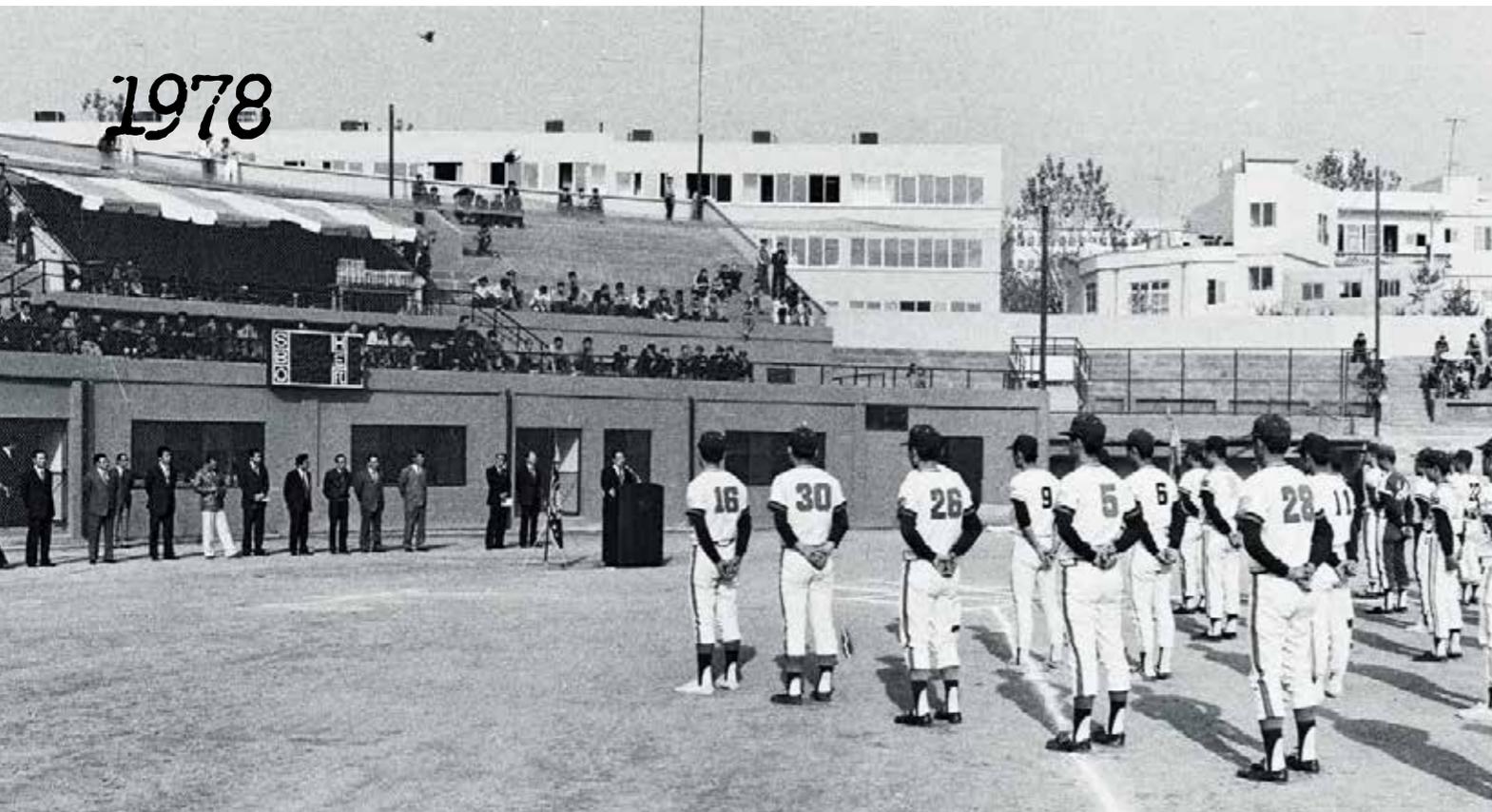
청룡기 제패에서 와이번스 홈런까지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무수히 쌓인 시간의 층을 돌아보며 오늘을 마주하고 내일을 그려본다. 인천시 기록관에서 오랜 세월 소중히 그려모은 역사의 기록을 하나둘 꺼내 선보인다. 잠들어 있던 사진 한 장이 묵은 먼지를 털고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역사는 생명력을 얻는다. 그 여섯 번째로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베이스 볼’이 시작된 ‘구도(球都)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자료제공 및 협조 인천시 기록관



1 인천시장기 쟁탈 4도시 고교야구 대회 시상식(1978년 11월 8일)
1950~70년대는 학생 야구의 전성시대였다. 전국 각 도시에서 고교야구 대회가 열렸다.
2 1988년, 동산고 황금 사자기 우승 시가행진(1988년 8월 9일)



인천시장기 쟁탈 4도시 고교야구 대회 시상식(1978년 11월 8일). 여기서 4도시는 인천, 서울, 부산, 대구를 일컫는다.



구도 球都 인천의 영광을 기억하며

“인천 하면 야구, 야구 하면 인천”이란 말이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다. 1950년대 전국에 고교야구의 열풍이 불 때 인천은 그 중심에 있었다. 인천 상업의 후신 인천고는 1952년부터 3년 연속 전국체전 우승, 1953년, 1954년 청룡기 우승 등으로 고교야구 최강자로 군림한다. 라이벌 동산고 역시 1955년부터 1957년까지 3년 연속 청룡기 우승을 거머쥐고 이후에도 승리는 계속됐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고교야구의 인기는 주춤한다. 하지만 1980년대 인천고와 동산고는 청룡기와 황금사자기 등 당시 대표적인 고교야구 대회 정상에 오르며 열기를 이어갔다. 사실 ‘구도(球都)’ 인천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1919년 일제강점기에 결성한 ‘한용단’은 우리나라 야구 역사 최초로 한국인으로만 이뤄진 야구단이었다. 지금의 제물포고 자리인 ‘웃터골’에서 이들의 경기가 열릴 때면 조선인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됐다.

오늘도 신화는 계속된다

고교야구가 지핀 열기는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로 이어졌다. 한국 프로야구의 대장정이 시작된 지 34년. 우리는 2007년 가을을 아직도 기억한다. 인천 SK와이번스가 ‘200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면서 구도 인천의 꿈을 이루고 인천 시민 모두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화려하고 거침없는 비상은 계속된다. 2016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대장정은 지난 4월 1일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이어진다. 예감이 좋다. 5월 28일 현재, SK와이번스는 25승을 거두며 정규리그 3위를 달리고 있다. 인천이란 이름을 걸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시민의 염원이 모여, 다시 기적을 일굴 것이다. 인천이 올 시즌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날까지, 300만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는 인천’을 뜨겁게 외치자. 한국 야구의 역사를 쓴 구도 인천의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1 1984 한국 프로 야구 시즌, 인천 삼미슈퍼스타즈와 삼성라이온즈의 경기 전 시구 현장(1984년 4월 7일)
2 1998 한국 프로 야구 개막전에서 인천 현대유니콘스 응원단(1998년 4월 15일)
3 1998 한국 프로 야구 개막전에서 인천 태평양돌핀스 선수들(1995년 4월 15일)
4 2000 한국 프로 야구 홈 개막전에서 SK와이번스 야구단(2000년 4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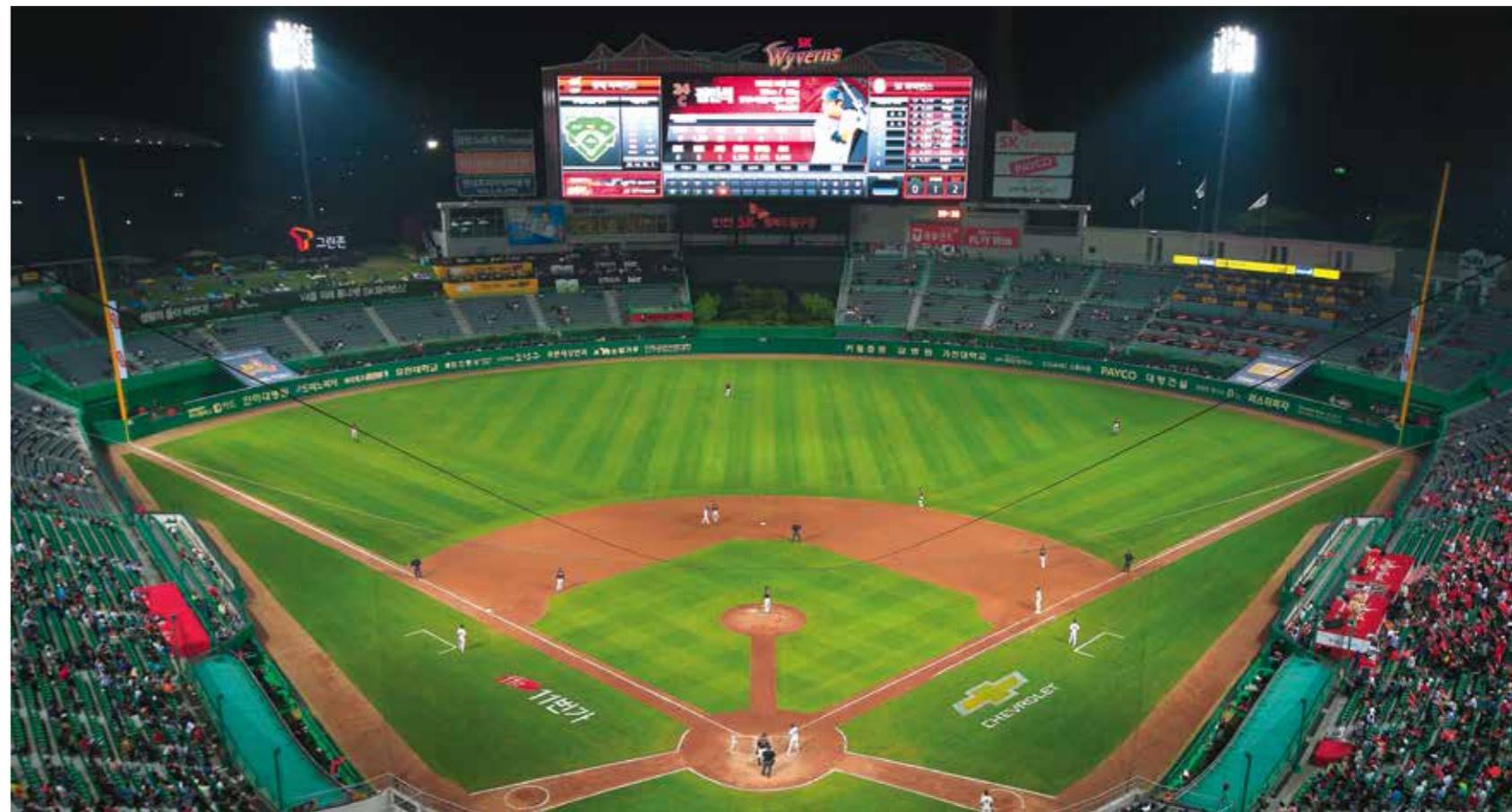


내일, 한국 야구의 역사 새로 쓰다

구도 인천. 그동안 인천 야구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팀이 흩어지고 바뀌었으며 떠난 선수도 있고 다시 돌아온 선수도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인천이란 이름을 걸고 땀 흘리는 선수들과 한결같이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준 팬들이다. 2000년 인천의 대표 팀이 된 SK와이번스는 2007년, 2008년, 2010년 한국시리즈 우승이란 빛나는 성과로 인천시민의 성원에 보답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인천 야구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희망차다. 선수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기록에 박수를 보내며 나머지 시즌을 기약하자. 위풍당당 그들이 구도 인천의 영광을 기리며, 한국 야구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다!



2016년 프로야구 시즌 경기 한창인 인천문학경기장(2016년 5월)



일등이던 꼴찌던, 우리의 슈퍼스타즈

'야구가 시작된 도시, 야구를 잘하는 도시.' 인천 시민의 가슴속에는 항상 야구에 대한 자긍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인천 야구가 걸어온 길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인천은 연고팀 삼미슈퍼스타즈를 창단했다. 이름과는 달리 스타플레이어 하나 없이 '최하위를 벗어나는 게 목표'이던 팀이었다. 청보핀츠, 태평양돌핀스... 그 후로도 인천 연고팀은 계속 바뀌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유니콘스는 1996년 창단 첫째 준우승을 차지하고 2년 뒤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쥐며 인천 프로야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 하지만 서울 입성을 시도해 시민에게 실망감을 주었고 결국 SK와이번스에 연고를 넘겼다.

자연의 빛, 도심에서 만나다

맑고 투명한 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초여름 밤, 지상에서도 반짝이는 별이 조용히 내려앉는다. 공중을 사뿐사뿐 깎뻑이며 날아가는 작고 양중맞은 반딧불이. 작은 불빛의 움직임을 좇다보면 마치 꿈을 꾸듯 몽롱하다.

어릴 적, 우연히 꿈처럼 보았던 반딧불이는 빛 공해와 오염으로 얼룩진 도시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반딧불이를 바로 눈앞에서 볼 기회가 찾아온다. 5년 동안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해 온 인천대공원이 올해 처음으로 반딧불이 모습을 공개한다.

글 김윤경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계양산 반딧불이축제조직위원회



짧고 강렬한 유혹의 빛, 반딧불이

가난한 사람이 반딧불이 불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형설지공(螢雪之功)’에 등장하는 희망의 상징 반딧불이.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작고 노란 불빛의 반딧불이는 여름밤, 농사를 짓는 마을 어귀나 개울가 등지에서 이따금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호박꽃이 피면 눈앞에서 반짝이는 아름다움에 취해 반딧불이를 잡아 호박꽃 속에 가둬놓고 노란 등불을 만들었다. 어른들은 반딧불이를 도깨비불이라고 부르면서 아이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다. 아쉽게도 달빛조차 사라진 완전한 어둠 속에서 천상의 별빛과 지상의 반딧불이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모습은 여름밤 2주 동안만 허락됐다. 반딧불이가 알, 애벌레, 번데기 시절을 지나 성충으로 자라는 기간은 1년 남짓이지만 불빛을 내며 날아다니는 성충 시절은 길어야 고작 2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을 꾸 듯 추억 속에서만 기억되는 반딧불이가 여름이 되면 더욱 그리워진다.

반딧불이는 청정지역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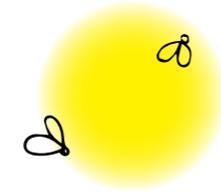
반딧불이는 종류에 따라 발광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애반딧불이는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 늦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가 사라지고 난 다음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경에 나타난다. 성충이 되기 전의 애반딧불이 애벌레는 물속에서 다슬기를 먹고, 늦반딧불이 애벌레는 육상에서 달팽이를 먹고 산다. '개똥벌레'라고 하는 반딧불이는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에 속했지만 지금은 오염되지 않은 일부 청정 지역에서만 관찰돼 환경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환경 지표종으로 손꼽힌다. 반딧불이 서식지는 주변에 깨끗하게 흐르는 물이 있고 인공불빛과 인적이 없어야 하는 등 그 조건이 까다롭다. 급속한 도시화와 소하천 등지의 농약오염 등으로 반딧불이가 점차 사라지면서 요즘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다큐멘터리나 자연관찰 책에서만 반딧불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대공원에 나타난 반가운 반딧불이

동부공원사업소는 지난 2012년부터 장수천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위해 인천대공원 습지원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해 왔다. 반딧불이 인공 증식은 물론, 반딧불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공적으로 논을 만들어 물을 정화하고,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이인 다슬기를 주기적으로 공급해 왔다. 특히 반딧불이 서식을 위해 조성한 논은 매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범서 파종부터 모내기, 가을걷이까지 전 과정을 청소년 벼농사 체험으로 운영한다.

정수경 인천수목원 녹지연구사는 "생태계가 살아나 달팽이 같은 것이 흔해지면 반딧불이의 먹이가 되는데,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 두는 것보다 논농사를 짓는 것이 우점종의 독주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며 "2012년부터 진행된 반딧불이 복원사업이 지난해부터 가시적인 복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천대공원 습지원에서 지난해 6월, 하루 100여 마리 이상의 애반딧불이가 발견돼 올해부터 '한여름 밤의 반딧불이와 추억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여길 가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

강화도, 덕적도, 소청도, 굴업도 등 인천 대부분의 섬에서는 아직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 도심에서는 이번에 개방되는 인천대공원 습지원 말고도 매년 반딧불이 축제가 열리는 계양산에서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다.

인천대공원 습지원-애반딧불이
인천대공원은 6월 8일부터 21일까지 생태보전 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반딧불이 서식지인 습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1일 20명을 신청받아 반딧불이를 좀 더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 동부공원사업소
(arboretum.incheon.go.kr)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늦반딧불이
계양산에서는 생태계 보전과 계양지역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2008년부터 매년 8월 말부터 9월 초 계양산반딧불이축제를 열고 있다. 가족단위의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은 해마다 인기절정이다.
문의 : 계양산반딧불이 축제조직위원회
(cafe.naver.com/gyeyangsan)



한중 '미래 지도자'들 인천에 온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시 대변인실



1



2

1 유정복 시장이 중국 창저우시를 방문, 왕대호 창저우 시장과 사정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2 유정복 시장이 12일 베이징 중국인민대회우호협회를 방문, 리샤오린 회장과 한중지사성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했다.

한중 FTA 1주년, 양국 광역단체장 한자리에

한국과 중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인천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시장)가 주관하는 '제1회 한중지사성장(省長)회의'가 오는 6월 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1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중국 31개 지방정부(성·직할시·특별 자치구) 단체장이 참석 대상이다. 한국과 중국의 광역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1일 FTA 협정 서명을 계기로 한중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만큼,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지방 교류 활성화 기대

한중 지사성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중 FTA 체결 1주년에 따른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경제, 문화, 관광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다. 회의에 앞선 7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송도 쓰레기 집하장, U 시티 관제센터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8일 오전에는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성장이나 직할시장은 미래의 지도자들로 볼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경제 교류"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실익 위주의 지방 외교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천 안의 중국시대 건설'이라는 의미의 '인-차이나(In-Chin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주요 도시를 발굴하고 인적 물적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비즈니스 기반을 계속 구축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유 시장, 中 지방정부 방문 협력 요청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지방정부를 방문해 한중지사성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힘을 실었다. 양국의 경제 관광 교류에 물꼬를 트고 '대중국 친화도시 인천'의 입지도 탄탄히 다졌다.

유 시장은 이 기간 중국 충칭시, 베이징, 창저우시를 차례로 방문해 한중지사성장회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닦았다. 먼저 11일 황치판(黃奇帆) 충칭시장과 만나 경제·관광 분야의 교류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 성격의 비망록을 체결했다. 12일에는 베이징에서 리샤오린(李小林) 중국인민대회우호협회장과 리후이라이(李惠來) 외교부 부장조리를 만나 한중지사성장회의의 성공 개최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13일에 왕다후(王大虎) 창저우 시장과 '경제·무역·투자 및 관광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창저우 부시장 일행은 지난 4월 25일 인천시를 방문해 교류 협력 의향서를 교환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개발·투자 협력 협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5월 현재 윈난 성·허난 성·산시 성·헨진 시·신장위구르 자치구·시짱 자치구 등 중국 6개 지방정부가 부성장급 이상 간부의 참석 의사를 밝혔다. 참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 관광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양국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가 그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 한중지사성장회의는 향후 2년마다 한국과 중국에서 교대로 개최, 양국지방정부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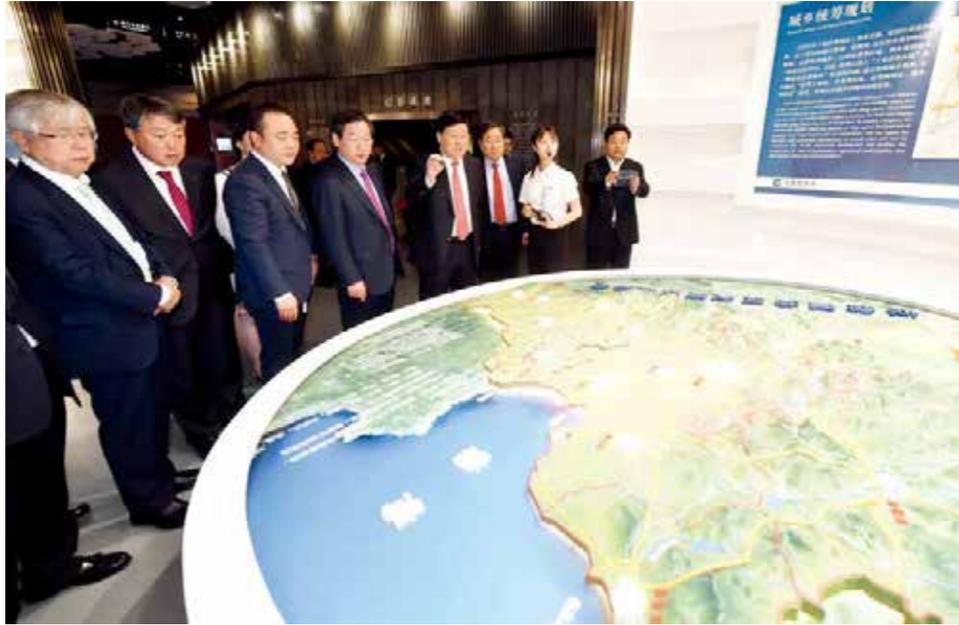
'제1회 한중지사성장(省長)회의'가 오는 6월 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에서 열린다. 한국과 중국의 광역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굳게 다지기 위해 마련된 한중지사성장회의는 향후 2년마다 한국과 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 한중 광역단체장 인천에서 머리 맞댄다

주제 : 한중 FTA 체결 1주년에 따른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방안
기간 : 2016년 6월 7일(화)~9일(목)
장소 :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
참석 대상 : 한국 17개 시·도 단체장, 중국 31개 지방정부(성·직할시·특별자치구) 단체장
주요 일정
6월 7일(1일 차):중국 성장 입국, 현장시찰(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송도센트럴공원 수상택시, 송도쓰레기 집하장, U시티 관제센터), 환영 만찬
6월 8일(2일 차):청와대예방, 한중지사성장회의, 만찬
6월 9일(3일 차):출국 또는 개별 일정(자매도시방문 등)

NEWS BRIEF



세일즈 외교로 중국 친화도시 만든다

인천의 대중국 세일즈 외교로 '대중국 친화도시 인천'의 입지가 크게 강화됐다. 특히, 중국 충칭시와 베이징시, 창저우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향후 대중국 진출 확대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도시 간 경제 및 관광 교류 확대와 인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한중 지사성장회의 참석을 촉구하기 위해 중국 충칭, 베이징, 창저우시를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11일에는 충칭시장과 만나 인천의 매력적인 섬과 충칭의 내륙관광 자원을 상호 매칭, 관광 및 비즈니스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경제무역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와 스포츠 등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시도 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유 시장은 12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리샤오린(李小林) 회장을 만나 제1회 한중 지사성장회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13일에는 창저우시를 방문해 왕다후(王大虎) 시장과 '경제·무역·투자 및 관광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충칭, 베이징, 창저우시와 활발한 경제협력과 관광 교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천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 시 훌륭한 가교 역할 수행과 함께 인천이 대중국 친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국협력담당관실 ☎458-7292

INSIDE

세일즈 외교로 중국 친화도시 만든다

유아숲체험원, 인천 최초 산림청 인증 교육기관 등록

시민이 뽑은 가치재창조 선도사업에 14억 원 지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7월 30일 전면개통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 강화

유아숲체험원, 인천 최초 산림청 인증 교육기관 등록 인천수목원 유아숲체험원이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청 인증 교육기관이 됐다. 유아숲체험원은 2012년 산림청 국비 7천500만 원을 지원받아 인천대공원 안에 하늘데크·밭줄 놀이체험장·텃밭·연못 등을 갖추고 2만4천㎡ 규모로 조성됐다. 최

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유아숲 지도사 등 운영 인력을 확충함에 따라 산림청 인증 교육기관으로 등록됐다. 운영기관인 동부공원사업소는 교육기관 등록을 기념해 유아숲체험원의 꼬물꼬물 유아숲놀이' 교재를 발간했다. 교재는 솔방울 옮기기, 개나리팔찌 만들기 등 계절마

다 숲에서 할 수 있는 108가지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편 유아숲체험원은 인천수목원 홈페이지(arboretum.incheon.go.kr)에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동부공원사업소 ☎440-5882

시민이 뽑은 가치재창조 선도 사업에 14억 원 지원 우리시는 '인천가치 재창조 선도사업' 8건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18일 부평구청 소년수련관에서 '인천가치 재창조 선도사업 공모' 최종 심사를 열고, '인천 미식로드 1탄-푸드트럭 야시장&버스킹'(최우수상) 등 13건을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을 수상한 사업 8건에 대해 제안기관과 협의한 후 총 14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3천만~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문의 시 자치행정과 ☎440-2492



인천도시철도 2호선 7월 30일 전면개통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오는 7월 30일 오전 5시 30분 첫차 운영을 시작으로 전면 개통된다. 서구 검단오류역에서 남동구 운연역을 잇는 29.2km 노선에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주박기지 각 1개소 규모로 건설됐다. 최첨단 자동 무인시스템으로 운행되는 2호선이 개통하면 공항철도, 경인전철, 인천지하철 1호선과 환승체계가 구축돼 도심교통난 해소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도시철도건설본부 ☎451-2741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 강화 우리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다. 시는 집중 징수기간 동안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는 차량 및 부동산, 급여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 여부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현재 시내 도로 15개 노선(BRT 포함)에서 버스전용차로(총연장 110.87km)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시 교통관리과 ☎440-3903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7월 공식 출범 인천 경제 분야 공공기관 3곳이 오는 7월 통합해 하나의 기관으로 출범한다. 유사·중복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의 세 기관은 7월 1일부터

'인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통합돼 중소기업의 창업·보육과 디자인 개발, 수출 지원,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디자인과 청년 일자리사업 등의 핵심 기능이 신설된다. 문의 시 경제정책과 ☎440-3277

2017년 국비 신청액 2조4천649억 원...역대 최대 우리시는 지난 달 19일 '2017년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신청액을 2조 4천649억 원으로 추산했다. 우리시 국비 확보액은 2014년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한 후, 2014년 2조 213억 원, 2015년 2조 853억 원, 2016년 2조 4천520억 원 등 매년 상승했다.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인천보훈병원 건립 213억 원(이하 신청액 기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29억 원, 강화지구 농촌융복합 개발사업 200억 원, 인천발 KTX 건설 200억 원 등이 있다. 한편 시는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차례로 방문, 주요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의 시 재정관리담당관 ☎440-8633



NEWS BRIEF

INSIDE

외국인 유학생 인천 알림이 역할 기대

몽골 '인천 희망의 숲'에 올해 5천300주 식재

어울(Oull,) 상하이 국제 미용박람회에서 호응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인천시 선수단 파이팅!



외국인 유학생 인천 알림이 역할 기대 우리 시는 지난달 25일 인천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1명을 대상으로 '2016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을 실시했다. 시는 인천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인천의 역사와 문화 및 발전상을 알리고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유학생 대상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가 각국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친인천 민간 외교 사절단이자 인천 알림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시 다문화정책과 ☎440-2803

몽골 '인천 희망의 숲'에 올해 5천300주 식재 우리 시가 기후 변화 대응과 몽골 사막화 및 황사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몽골 '인천 희망의 숲'에 올해 총 5천300주의 나무를 심었다. 시는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 자원활동단 45명과 함께 지난 달 18일 3박 5일 일정으로 몽골 현지를 방문했다. 20일 몽골 현지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식목 행사를 통해 다산칠링숨 5ha의 면적에 포플러 등 4종 5천300주



의 식재작업을 마쳤다. 지난해까지 바양노르숨과 다산칠링숨 지역 62ha에 모두 9만3천000주의 나무를 식재했다. 한편 '인천 희망의 숲'은 몽골 환경부 및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도 몽골 사막화방지 조임을 위한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문의 시 녹색기후정책관 ☎440-8583

6월부터 한 달간 낙지포획 금지 올해부터 매년 6~7월 한 달간 인천 앞바다에서 낙지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시는 낙지 자원 보호 및 어업인 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낙지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낙지 금어기는 산란기인 6월 한 달간이지만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9월 31일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구별 수협, 각 군·구 및 서해수산연구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를 열어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는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처음 적용된 만큼 7월 말까지 행정지도 및 계고 위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수산과 ☎440-4862

어울(Oull,) 상하이 국제 미용 박람회에서 호응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이 중국 상하이 국제 미용박람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시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어울의 중국시장 판로 확보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 지난달 18

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상하이 국제 미용 박람회(2016 21st China Beauty Expo)'에 참가했다. 어울은 박람회 기간 동안 모두 135건의 상담(262만 달러)과 2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많은 상담이 이뤄진 만큼 향후 더 많은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상하이 국제미용박람회'는 '홍콩 코스모포르프 아시아', '광저우 국제 미용 박람회'와 더불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화장품·미용 전시회로 세계 26개국에서 참가했다. 문의 시 경제정책과 ☎440-3273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인천시 선수단 파이팅! 우리시는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인천시체육회 대강당에서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이날 결단식에는 유정복 시장, 노경수 시의회 의장,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대축전 참가 선수단 및 임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결단식은 출정 보고, 단기 수여, 단장 훈

시, 선수단 대표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지역 종목별 경기장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6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출전해 46개 종목에서 열전을 벌인다. 이번 대회에 인천시는 31개 종목에 선수 1천469명, 임원 28명 등 총 1천497명이 출전한다. 문의 시 체육진흥과 ☎440-4085

중국 충칭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우리 시는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충칭(重慶)시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양 도시 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했다. 2007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인천시와 충칭시는 2008년부터 매년 번갈아가면서 초청과 방문 교류 방식으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인천시가 충칭시의 초청을 받아 충칭시를 방문하는 해이다. 이번 홈스테이 교류에는 인천시 청소년 12명과 충칭시 청소년 12명이 참가했다. 문의 시 아동청소년과 ☎440-2846

'찾아가는 거리상담'으로 위기 청소년 보호 우리 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25일 청소년 밀집 지역인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가출·거리 배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위기 청소년 거리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거리상담은 전국 15개 시·도의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청소년 비행·일탈 가능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인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실시됐다. 한편 시는 거리상담 외에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인천청소년쉼터협의회와 인천의료원이 연합해 거리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연합아웃리치'를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시 아동청소년과 ☎440-2854

비리 없는 투명한 아파트 만든다 우리 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선다. 시는 다수인(집단) 민원 발생 및

분쟁 중인 아파트 4개 단지를 선정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및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상반기 점검은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 점검은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 조치하되, 비리·횡령 발생사례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문의 시 건축계획과 ☎440-4747



인천QR인증(품질우수제품) 접수 우리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인천QR인증(품질우수제품)으로 지정할 공산품을 해당 군·구 경제 관련 부서에서 접수 또는 추천받는다. 인천QR인증은 인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생산자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모두 784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이 제품들은 지정 기간(3년) 동안 판로개척 등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다. 문의 시 산업진흥과 ☎440-4298



NEWS BRIEF

GCF 사무총장, 인천 명예시민
되다 벨리 쉬호로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이 인천 명예 시민이 됐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쉬호로흐 GCF 사무총장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쉬호로흐 사무총장은 GCF의 안정적인 정착과 녹색도시 인천의 국제 위상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른 번째 명예 인천 시민이 됐다. 튀니지 국적의 쉬호로흐 사무총장은 몬트리올 경영대에서 재정학을 전공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 민간재정구조 매니저, 세계은행 라틴아메리카 지역 민간 재정분야 담당 등을 지냈다. 문의 시 총무과 ☎440-2527



노인복지혜택이 한눈에~ 우리시는 최근 인천시,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정보 등을 취합해 수록한 '인천 어르신 생활정보 가이드북' 1만부를 제작했다. 가이드북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노후 긴급자금 대부, 노인인무임교통카드 발급, 노인건

강검진 지원, 독거노인 식사배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문화공연관람 지원, 실버농장운영 등 총 38건의 노인복지관련 수혜사업이 수록돼 있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인천지역 공공기관 현황과 전화번호 등도 기재돼 있다. 시는 가이드북을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쉽고 많이 이용하는 주민센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에 배포하는 한편,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게재할 방침이다. 문의 시 노인정책과 ☎440-2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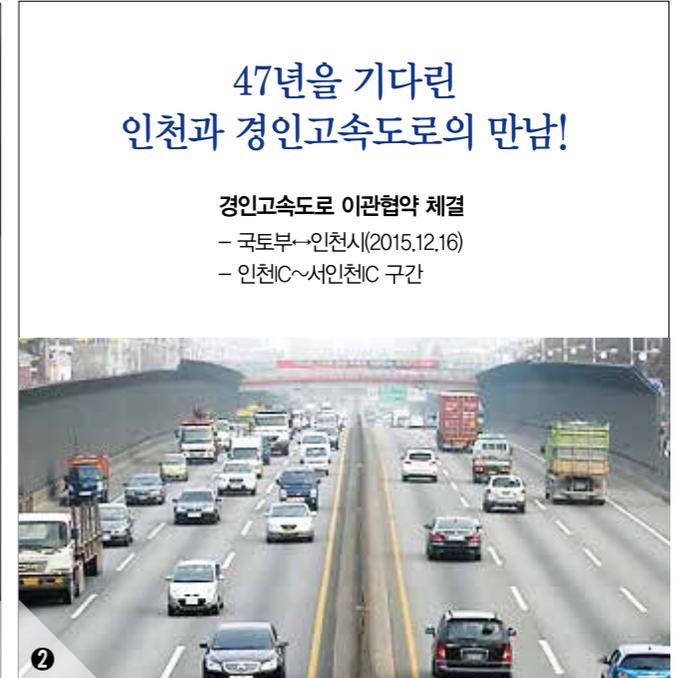
SK인천석유화학,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00억 원 SK인천석유화학이 지난달 20일 (재)인천인재육성재단에 100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은 SK인천석유화학이 기부한 장학금을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인근 지역 학생들을 비롯해 인천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SK인천석유화학(주)의 장학금금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천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앞장선 의미 있는 기부"라며 "기부 받은 기금은 10배, 100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학 사

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재)인천인재육성재단 ☎831-9408

도시지역 가축 무료 진료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군청 및 옹진군청과 협력해 지난 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도시지역인 강화군 교통도와 석모도, 옹진군 백령면을 찾아 가축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도시지역 가축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59농가, 4천973두의 가축을 진료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부터는 가축위생방역본부와 연계해 구제역·AI 등과 같은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일제 검사도 함께 추진했다. 문의 보건환경연구원 ☎440-5644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50m 건물까지 건축 가능 월미도의 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7층에서 9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인천 월미도의 도시계획이 변경돼 50m이하 즉 16층에서 17층 높이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됐다.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2007년 이후 9년만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우리시는 월미산 정상이 108m인 점을 고려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50m 높이 제한을 뒀으며,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추가로 수립할 예정이다. 문의 시 도시계획과 440-4633

IMAGE NEWS



INSIDE

GCF 사무총장, 인천 명예시민 되다

노인복지혜택이 한눈에~

SK인천석유화학,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00억 원

도시지역 가축 무료 진료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50m 건물까지 건축 가능

COUNCIL NEWS



암거 철거 및 신설 우수관로 설치 공사'와 관련, 기존 하수암거 대비 신설 하수관로 관경의 축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현장을 방문해서 도시공사 등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실상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향후 도시공사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모니터는 시민과 의회의 소통매개체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달 19일 3월과 4월 중 의정모니터 제안서 32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우수 제안 중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증설과 담당지도교사 증원 그리고 장애특수학교 건립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장애학생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시설 부족현상'의견이 최고점수를 받았다. 또 우수제안에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일선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교육청의 감사행정 개선'이 선정됐다.

인천시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 요원은 총 5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다"며 "다른 학생들도 참가해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민생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달 2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기존 하수

인천시의회 '145회 청소년 의정교실'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달 17일 본회의장에서 제145회 청소년 의정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안수여중 1학년 4반 학생 25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스피치 특강을 들은 뒤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이날 행사에서 상정한 안건은 두발 및 용의 복장 규제 조례안 등 2건이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등 시정질문 3건과 5분 자유발언 3건도 진행됐다. 안술교사로 참석한 한아름 교사는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

INSIDE

인천시의회 '145회 청소년 의정교실'

건설교통위원회, 민생현장 점검

의정모니터는 시민과 의회의 소통매개체



주민불편사항 등 247건을 제안한 바 있다. 의정모니터는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정보는 물론 자치입법의 제·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편 제2기 의정모니터 활동이 이달 안으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의정모니터를 현재 모집 중이다. 제3기 의정모니터는 오는 7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인천 특수교육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 특수교육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천시민과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기관·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는 인천시교육청 박운국 교육국장의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인하대학교 이영선 교수가 주제를 발표했다. 정귀순(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관), 강원배(시청 장애인정책팀장), 박태성(인천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재용(인천장애인부모연대 변호사), 최영수(인천인혜학교 교사) 토론

자가 장애학생 사회통합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과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제안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태국 방콕시의회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인천시의회와 우호관계에 있는 태국 방콕시 의회가 카닌턴 우용사롯(Kanintorn Vongsarajana) 제1부회장을 단장으로 총 8명이 지난 달 23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태국 방콕시 의회 대표단은 노경수 의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 의회간 지속적인 상호 우호교류 방안에 대하여 환담을 나눴다. 방콕시의회의 이번 방문은 자매 우호도시로서 양 도시 의회의 상

호친선 국제교류 및 우호를 다지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5월 27일까지 5일간 경제자유구역청 내 송도 홍보관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교통관제센터, 자기부상열차 관제소 견학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중국 중경모음문화전파유한공사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중국 중경모음문화전파유한공사

사 대표단이 지난 달 10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탕웨이 단장은 이날 '2016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협조 및 상호 우호교류 방안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노경수 의장을 예방했고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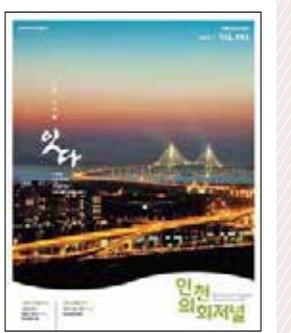
노경수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가 '인천 내 중국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적극 돕고 있다"며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2016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페스티벌' 행사가 인천시와 중국 관광객들을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탕웨이 대표는 "이번 인천시의회 예방을 통해 향후 한중 문화 및 예술분야 교류에서 성공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에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의회저널' 구독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는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440-6135-8
홈페이지 www.icouncil.go.kr





화도진 돌산에 심은 가톨릭 정신

졸업앨범에는 학교만 있지 않다. '인천'도 있다. 졸업기념 사진촬영 때 학교 주변 동네의 풍광이 종종 카메라에 잡혔다. 교외(校外)에서 잡은 포즈나 학교 밖의 행사를 담은 사진은 더없이 귀한 인천의 과거이다. 지역 내 고교 앨범을 통해 수집된 사진을 통해 인천의 6, 70년대를 반추해 본다. 그 여섯 번째로 인천대건고등학교의 앨범을 들춰 보았다.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 재촬영 홍승훈 자유사진가



동춘동 현재의 교정



김대건상

설립자 이창흠은 일제 말기 3년간 인천 공립공업학교(현 인천기계공고)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곳에서 일제의 식민지 우민화 정책에 울분을 토하면서 한국인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온갖 박해를 이겨내며 인천영화학원을 운영해 온 내리교회 교단과 협의해 학교 설립 기성회를 결성했다. 장차 영화 교단 안에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까지 운영하리라는 벽찬 희망을 함께 안고 출발한 것이다. 교명도 내리교회가 1903년에 신식학교를 설립하면서 '영생교회'라는 말에서 따온 '영화'라는 이름을 넣어 '인천영화중학교'로 지었다. 1946년 10월 22일 2개 학급 120여 명의 학생과 6명의 교사로 학교 문을 열었다. 입학식이 열린 곳은 내리교회당이였다. 신입생 선발고사도 내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영화학교에서 실시했다. 학교는 당시 적산이었던 도시바 전기회사의 기숙사 건물과 현 만석초등학교 자리에 부지를 마련했다. '대건(大建)의 씨앗인 인천영화중학교가 그곳에 심어졌다. 개교한 지 얼마 안 돼 6·25 전쟁이 발발했다. 적 치하 60일의 상처를 극복하고 황폐한 교정에 모였던 2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학원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1953년 중학교 6년제에서 고등학교 3년제가 분리 운영되는 학제 개편이 실시되었다. 이때

인천영화고등학교가 병설되어 6학급 인가를 받았다. 설립 당시에도 비좁았는데 고등학교까지 들어서자 한계를 느껴 새 교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인근 돌산을 매입해 교사 증축에 착수하였다. 이 야산은 바로 옛 화도진 터였다. 전쟁의 피폐 속에 화도진의 흔적은 하나도 남은 게 없었고 주변은 엉망이었다. 잡목만 듬성듬성한 야산의 둘레에는 전란을 겪은 이재민과 북쪽에서 내려온 실항민들의 무허가 판잣집들이 난립해 있었다. 비탈진 북편 언덕을 매입해 교지 정지 작업을 하는 한편 본관 건물인 목조 2층 건물 건축에 착수했다. 인천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제2기갑부대의 중장비 지원을 받기도 했다. 1962년 학교 운영재단은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으로 이관되었고 다시 곧바로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 학교를 맡게 되었다. 이듬해 '인천대건중·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으로써 명실 공히 가톨릭 미션 학교로서 참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988년 대건중학교는 제 40회 졸업식을 끝으로 9천52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문을 닫으면서 고등학교 단일체제로 나갔다. 대건고는 1998년 화수동 시대를 접고 동춘동 봉재산 품에 안겼다. 현재까지 '영화' 시대를 거치며 1만8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사라진 화도진 터 모습(57년도, 63년도 앨범)

학교를 병풍처럼 둘러싼 이 절벽 산은 옛 화도진 터였다. 잡목만 덩성덩성했던 이 산 주변에는 피란민들의 무허가 판잣집들, 방치된 채 버려진 창고, 엉성한 가내공장 등이 난립해 있었다. 운동장으로 뺄죽 튀어나와 있는 돌산은 마치 학교의 '옹이'와 같았다. 돌산이 가로막는 바람에 운동장 활용이 힘들었고, 교문에서는 본관 건물이 보이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교사와 학생들은 틈나는 대로 이 돌산을 깨부셨다. 수십 년이 지난 1972년에야 겨우 앉던 이 빠지듯 없어지게 된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화도진 터가 그때 크게 훼손된 것이다. 100여 년 전 화도진은 소나무 숲으로 뒤덮였고, 바닷물이 진지 바로 밑까지 밀려들어왔으며, 제물포(현 중구 일대)로 통하는 한 줄기 오솔길이 화도고개를 넘어갔을 뿐이라고 전해진다. 화도진은 지난 1988년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화도진도(花島鎭圖)'를 토대로 복원됐다.



자유공원 시절의 시립박물관(64년도)

1946년 4월 1일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옛 세창양행 사택 자리(현 맥아더 동상)에 인천시립박물관이 개관했다. '국내 최초의 공립박물관'의 막이 오른 것이다. 1953년 지금의 제물포구락부 자리에서 재개관했으며 자유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단골 방문 코스였다. 정문 앞에 있는 커다란 향로가 인상적이었다. 1990년 5월 4일 연수구 옥련동으로 이전했고 지난 4월 1일 개관 70주년을 맞았다.

사라진 원통형 기상대 건물(64년도)

일제는 1905년 1월 1일 응봉산 정상에 관측 장비를 갖춘 인천측우소 청사를 세웠다. 당시 이 측우소는 만주지방의 관측소까지 통괄했고 일본 기상대, 런던의 그리니치천문대와 기상정보를 주고받을 만큼 보유기술도 뛰어났다. 후에 세워진 하얀 원통형 건물은 인천기상대의 상징이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이 건물을 기상대 측은 문화재 가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2012년 소리 소문도 없이 철거했다.



60년대 화수동 일대 모습(64년도)

가톨릭 미션스쿨답게 종교 행사가 자주 열렸다. 성체를 모시고 성당 밖을 행렬하는 행사인 '성체거동(聖體舉動)' 의식에 참여한 학생들과 신자들의 모습. 60년대 화수동 일대의 풍광이 렌즈에 고스란히 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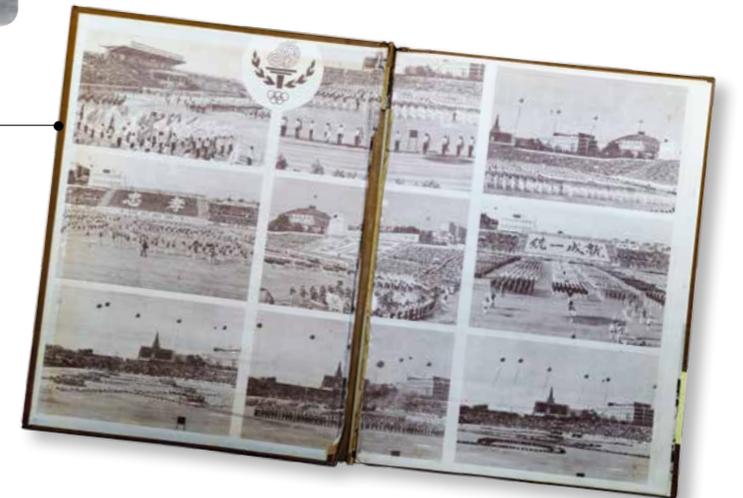
단체 관람 인천극장(63년도)

대건고에서 가장 가까운 영화관은 인천극장이었다. '소동과 고모라'를 단체 관람하기 위해 학생들이 줄지어 있다. 인천극장은 당시 중심가였던 동인천 가까이에 있었지만 삼류 취급을 받았다. 한때 불량배가 많기로 소문난 극장이었다. 1955년 3월 연극 전문극장으로 개관하였는데 이듬해 1956년 4월 24일 화재가 나 전소되었다. 1960년대 시민극장에서 인천극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해오다 2001년 9월에 문을 닫았다. 현재는 작은 마트가 자리 잡고 있다.



59회 인천전국체전(78년도)

14년 만에 인천에서 두 번째 열린 체전(1978년)이다. 각종 불상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모범체전이였다. 59회 전국체전은 '국화체전'으로도 기억된다. 거리마다 5만 그루의 국화화분이 투입돼 시내 전체가 국화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당시 많은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취업하려 간 사태를 반영하듯 처음으로 재(在)사우디아라비아 선수단(임원8, 선수18)이 참가했다. 성화 최종 주자는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인천의 아들 장창선이었다.





1



2



6



3



4



5



7

배 타고 간 강화여행

6, 70년대 인천 시내 학교의 수학여행 단골 코스는 강화도였다. 당시 강화도는 육로가 없어서 1970년 강화교가 개통될 때까지 배로 다녔다. 강화 가는 배는 '항보호' '갑제호' 등이었다. 인천역 뒤 부두에서 떠나 동검도 앞을 지나 초지리(초지진)에서 내렸다. 그곳에서 전등사 아래 마을까지 걸어가서 여장을 풀었다. 마니산 참성단 제단 위까지 올라간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단군 할아버지가 '여기, 이놈들' 하고 호통을 치지나 않으셨는지. 제단 옆의 소사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그곳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58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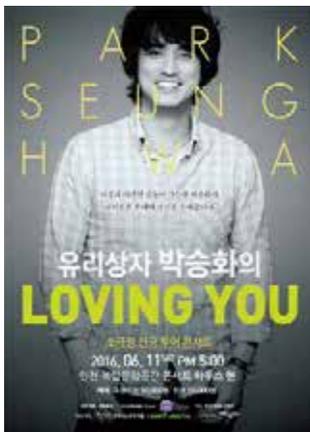
- 1. '임해(臨海)'라는 단어는 '바다에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로 한 때 임해공업단지, 임해관광, 임해도로 등의 말이 흔하게 사용되었다. 대건고의 '임해교실'은 1968년 처음 시도해 1970년대 까지 해마다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영어회화 합숙 훈련 (English Language Camp)'으로 실시되었다. 미국 평화봉사단 젊은 남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영어회화를 지도했다. (70년도)
- 2.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4·19 의거 기념식에 참가한 대건고. 플래카드에 '상기하자 4·19 정신, 바로잡자 민족정기'라고 적혀 있다. (64년도)
- 3. 초기 영화학원은 운동부 등 특별교육에 큰 비중을 두었다. 특히 레슬링은 경기도 내에서는 적수가 없을 정도였다. 1970년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레슬링의 패권을 차지한 선수들이 배출되기도 했다. 훈련 장면이 거의 묘기대행진 수준이다. (64년도)
- 4.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이 빈약했던 시절, 그나마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은 '문학의 밤'이란 타이틀로 예술제를 여는 교회와 학교였다. '낙엽 지는 하이얀 밤의 향연'이란 이름의 예술제가

- 열린 날, 금녀(禁女)의 남학교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초청되었다. (66년도)
- 5. 한때 체력장(體力章)은 필수 교과였다. 1972년부터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력장을 실시하였다. 종목은 윗몸앞으로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왕복달리기, 턱걸이, 던지기, 도움닫기멀리뛰기, 100m달리기, 오래달리기 등이었다. 그 때 체육 선생님들의 위상은 최고조였다고 볼 수 있다.(76년도)
- 6. 송도해수욕장은 단골 소풍 장소였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점심 먹고 진행되는 반별 장기자랑. 비록 백사장 띄어벌 아래의 노천 무대였지만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그날도 또 한 명의 교내 '스타'가 탄생한다. 소풍의 단체복은 늘 교련복이었다. (82년도)
- 7. 1962년 운영 재단이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으로 이관했다. 교명은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이름을 따 '인천대건중·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본관 중앙 현관 베란다 위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상(像)을 세웠다.(75년도)



06 June

CULTURE CALENDAR



02 화 인천시립합창단 브런치콘서트-꽃밭에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04 토 인천시티발레단
'신밧드가 부릅니다, 열려라 발레'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원
☎ 580-1135

갑비고차농악
인천무형문화재전수관
오후 3~4시
☎ 440-8084

05 일 세움(SEUM)
인천무형문화재전수관
오후 5~6시
☎ 440-8084

10 금 '어린이음악회-라비아 놀자'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후 4시, 오후 7시
R석 2만 원, S석 1만5천 원
☎ 460-0560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55회 정기연주회
Rainbow Season - Blue
'낮설음과의 조우, 신세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11 토 유리상자 박승화 콘서트 'LOVING YOU'
콘서트하우스 현
오후 5시
전석 5만5천 원
☎ 834-1055

12 일 2016 장범준 전국공연
'사랑에 빠져요'-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R석 9만9천 원, S석 8만8천 원
☎ 1566-6551

15 수 커피콘서트VI 여성트리오
'정가(正歌)양상블 소울지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 원
☎ 1588-2341

16 목 '2016 라이징스타' 신인음악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전석 1만5천 원
☎ 500-2000

바람에 오르다 'Funny band'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30분
무료
(2일 오전 9시부터 www.ilec.go.kr 선착순 접수)
☎ 899-1516-7

17 금 연극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18, 19, 24, 25, 26일도 공연 시간은 각각 문의)
3만 원
☎ 1544-3901

18 토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쓰리재홀
오후 2시, 5시
전석 무료
(3일 오후 4시 예약오픈 www.iecs.go.kr)
☎ 760-3457

황해도평산소 늬름 굿
인천무형문화재전수관
오후 3~4시
☎ 440-8084

패밀리 쇼! 캐리와 장남감 친구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19일도 공연)
R석 5만5천 원, S석 4만4천 원
☎ 1566-6551

22 수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여명의 빛'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010-6755-2751

25 토 '좋아서 하는 밴드' 인천 공연
콘서트하우스 현
오후 5시
전석 3만5천 원
☎ 834-1055

인천근해도서지방상여소리
인천무형문화재전수관
오후 3~4시
☎ 440-8084

제 66주년 6·25 전쟁 기념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초대
☎ 420-2973

28 화 마티네콘서트 '마실'-그림 읽어주는 남자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천 원(사전 전화예약 후 선착순 입장)
☎ 460-0560

제24회 새얼국악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885-3611

스칼라소년소녀합창단이 들려주는 힐링 음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2만 원
☎ 888-9911

29 수 스바보드나-세계 거장들과 함께
그라시아스합창단 특별콘서트
오후 7시 30분
VIP석 10만 원, R석 8만 원, S석 6만 원
☎ 070-7538-5303

**제12회 폴립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평화와 화합을 위한 행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010-2602-4420

| 이달의 展 |

제36회 인천국화회전
6월 2~4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최윤정 개인전
6월 2~4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인천 현대미술의 흐름전
6월 3~9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15회 원목회전 원목회 차영현
6월 3~9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한국화 김현숙 개인전
6월 3~9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4회 인치문화예술제
6월 10~16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김진숙 개인전

6월 10~16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2회희사랑, 나눔전 인천학원연합 아동미술기부전시회전
6월 10~16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구철희 개인전
6월 10~16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흙을 통한 회귀
6월 15~26일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바람에 오르다 'Funny band'
6월 16일 |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수채화내품로(내맘대로 수채화란)
6월 17~29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이명지, 가을 詩 카메라로 쓰다
6월 17~29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Incheon Art Fair of Living Collaboration 및 회원 전
6월 17~23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

새빛모임 정기 회원 전
6월 17~23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청관회 원로작가전
6월 17~23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2016년 한·중 교류전
6월 24~30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유순희 개인전
6월 24~30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김정열 개인전(콜라주)
6월 24~30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비타민 공연’으로 일상 충전!

유월, 인천 곳곳에서 열리는 비타민 같은 공연으로 일상을 에너지로 충전하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어우러진 공연을 즐겨보세요.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백석의 행적을 찾아

주옥같은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남 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등을 남긴 시인 백석. 그는 친일을 거부하기 위해 한때 절필했고, 북쪽에서는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는 시를 쓰지 않기 위해 번역과 동요 시에 몰두하다 부르주아로 몰려 집단농장으로 유폐된다. 이 연극은 백석이 귀양지에서도 민중과 함께 자연과 벗하며 살았던 천상 시인의 모습을 추적한다. 세상이 아무리 가혹해도 유머와 위트를 풀씨처럼 퍼뜨리며 살았던 백석의 삶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스테이지149-연극선집 '백석우화'
일시 6월 9일(목)~11일(토) 목 오후 2시, 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엔티켓 ☎ 1588-2341

음악으로 하루키와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

넋째 주 목요일 11시에 만나는 부평아트센터의 대표 콘서트 '음악, 예술을 만나다'. 예술 안에서 영감 받았던 음악에 귀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두 거장의 작품을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다시 음미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상상의 시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천공의 성 라퓨타의 OST를 만날 수 있다.



브런치 콘서트 '음악, 예술과 만나다'
일시 6월 30일(목)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5천 원
문의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500-2000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모 민츠'와의 만남

솔로모 민츠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슈테른, 펠만, 주커만 등과 함께 유태계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를 정통으로 계승했다. 비발디의 사계는 솔로모 민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한 작품으로, 이번 공연에서 <가을>과 <겨울>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의 전도유망한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이 함께한다. 솔로모 민츠는 스위스 시옹페스티벌에서 그의 연주를 접한 후 "자연적이고 타고난 순수한 색깔을 가진 연주자"라고 극찬한 바 있다.



솔로모 민츠&윤동환 '세계적 거장과의 만남'
일시 6월 30일(목) 오후 8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문의 엔티켓 ☎ 1588-2341

소방훈련생들, 슈퍼 히어로가 되다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저 없이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야 하는 사람들. 공포와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화염 속으로 향하는 진정한 영웅 <파이어맨>. 캐릭터 코미디 퍼포먼스 <파이어맨>은 일상의 영웅 '파이어맨'이 되기 위해 모인 훈련생들의 훈련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다이내믹한 액션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박진감 넘치는 연출을 선보이며, 우스꽝스럽지만 정감 넘치는 캐릭터들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다.



년버벌 액션 퍼포먼스 '파이어맨'
일시 6월 22일(수)~7월 1일(금), 토요일 오후 2시(평일 시간은 별도 문의)
장소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R석 2만5천 원, S석 2만 원, A석 1만5천 원
문의 서구문화회관 ☎ 580-1135



야외상설공연 '황.금.토.끼' 초여름 밤, 음악과 함께 낭만이 깊어간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온. 유월의 초여름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살랑하게 부는 바람 따라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젖어보세요.

일시 6월 3일(금), 4일(토), 10일(금), 11일(토), 17일(금), 18일(토), 24일(금)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관람료 무료
문의 인천문화예술회관 ☎ 420-2051

6월 3일 | 음악창작소 더울과 함께하는 '빛과 시간의 노래'

가장 먼저 근대화의 여명을 맞이한 인천을 주제로 역사가 있는 추억의 곡들을 선정하여 들려준다. 그 기억 그 흔적 <아시안게임 폐막 곡>, 최초의 서구식 자유공원 <청천>, 소래포구 <협궤열차의 추억>, 시간을 간직한 배다리 <시간 여행자의 꿈>, 최초의 팔미도 등대, 최초의 극장 협률사 <노닐다> 등을 연주한다.

6월 4일 | 드럼피플 '드럼캣'

'드럼캣'은 국내에서 유일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한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타악 그룹이다. 여성의 섬세함에 남성적인 파워풀한 타악 연주를 접목해 경쟁력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6월 10일 |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색소폰 하모니의 향연'

색소폰의 감미롭고 섬세한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이야기 콘서트. <오버 더 레인보> <프라우드 메리> <맘보 NO.5> <해변으로 가요> <인천항> <연안부두> <아름다운 강산> 등 주옥같은 명곡을 들려준다.

6월 11일 | 인천시립합창단 '오페라 아리아 갈라콘서트'

인천시립합창단이 우리 귀에 익은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합창곡을

선사한다. 안무와 함께 즐기며 보는 오페라 아리아로 초여름 밤이 아름답게 물든다.

6월 17일 | 이크택견-살판!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요'

택견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최초의 전통무예다. '이크 택견'은 세계화를 목표로 택견과 마살아트 퍼포먼스로 구성해 설립했다. SBS 스타킹, 문화가 있는 날 등의 무대에 서고 택견무예 순회공연을 하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6월 18일 | 메노뮤직 '행복하십SHOW'

'행복하십SHOW!'는 관객을 향한 인사이자 '행복한 쇼!'라는 뜻을 포함한다. 전자바이올리니스트와 뮤지컬 배우의 듀엣 무대, 혼성 아카펠라의 합작 콘서트 형식으로 관객과 즐기며 소통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을 선보인다.

6월 24일 | 집시의 열정! '뉴에보 플라멩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스페인의 플라멩코 음악과 연주, 노래, 춤을 만나 볼 수 있다. Pharaon, When I dream, Gringo, Al Alba, Agua Marina, Pintor, Bulerias 외 연주와 Farruca, Garrotin 등의 무용을 함께 만날 수 있다.

時間



우현 고유섭 선생 영정

박물관에서 느껴보는 우현(又玄)의 숨결

문을 연 지 70년이 된 시립박물관에는 지금까지 약 3천 점에 달하는 유물이 기증됐다. 모두 소중한 유물이기 때문에 기증품을 전부 전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전시실에 기증자 이름을 명패에 새겨 뜻을 기리고, 매년 기증자별로 1점 이상을 1년간 전시한다. 그런데 기증 전시실 진열장 3개 중 하나는 진열품이 바뀌지 않는다. 좀 특별한 기증품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 출신으로 우리나라 미술사학의 태두인 고유섭 선생의 유품이 그것이다.

글 이희인(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사진 인천시립박물관



고유섭 선생 동상

우현 고유섭(高裕變)은 1905년 2월 인천 용동(지금의 동인천 길병원 자리)에서 태어났다.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제대 철학과에 진학해 미학 및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경인열차로 통학했던 그는 대학 시절 그때까지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 미술사(美術史)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경주, 금강산 등 다양한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미술의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한국 미술사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의 토대를 쌓기 시작했다. 개성부립박물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미술사 연구에 매진해 조선 석탑의 분류와 청자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문적 기틀을 만들었다. 선생이 타계한 지 50여 년 뒤인 1992년 9월, 새얼문화재단이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박물관에 세웠다. 지금 박물관 광장 작은 언덕 위의 동상이 그것이다. 동상 제막에 즈음해 몇 해 전 차례로 고인이 된 선생의 둘째 딸 고병복 여사와 제자 황수영 박사가 선생의 손때가 묻어 있는 벼루와 필가(筆架), 인장(印章) 등의 유품

과 그의 글을 모은 책 등을 시립박물관에 영구 기증했다. 우현은 인천을 떠난 지 수십 년 만에 그를 닮은 동상과 유품으로서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그 뒤 박물관은 지금까지 줄곧 선생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인천에서 나고, 인천에 박물관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준 인천 사람 우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6월 26일은 선생의 72주기다. 초여름 아카시아 꽃향기가 은은한 요즘, 박물관에서 우리 예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깨웠던 선생의 숨결을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

▼인장, 필가

우현 선생이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 (우현 선생의 딸 고병복 여사 기증)



▼조선 탑파의 연구, 조선의 청자
우현 선생이 생전에 발표한 글을 모아 간행한 대표적인 책자 (故 황수영 박사 기증)



75년 세월 너머 마주 선 우현(又玄)과 석남(石南)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은 실례가 아닐는지요.”

인천시립박물관 초대관장 석남 이경성이 일본 유학 시절이었던 1940년대 초, 개성부립박물관장 우현 고유섭에게 보낸 편지의 첫 문장이다. 한 장의 편지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우현의 즐거(卒去)로, 끝내 만남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러한 인연을 석남은 늘 아쉬워했고, 그에게 우현은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우현 고유섭의 동상을 건립할 때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우현의 가족을 설득해 그의 유품을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하게 한 이도 석남이었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은 지 7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현과 석남은 비로소 마주서게 됐다. 석남이 일구었던 인천시립박물관의 정원, 우현의 이름을 딴 우현마당을 사이에 두고 말이다. 우리나라 박물관과 미술계를 대표하는 인천 출신의 두 거목, 우현과 석남이 긴 세월을 넘어 마주서게 된 것은 새얼문화재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면을 빌려 우현과 석남의 동상을 제작해 인천 시민들에게 헌정한 새얼문화재단에 후학이자 후배로서, 나아가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글 배성수(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석남 이경성관장 흉상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7 인천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접수

우리는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안을 접수받습니다.

제안내용

- 인천시가 추진하는 낭비성 예산사업에 대한 의견
-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

신청기간 6월 1일~7월 30일

신청방법

- 인천시 홈페이지 이용 :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접속 → 참여 →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안방
- 방문·우편발송·팩스 이용 :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담당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440-8632
- 자치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용 :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을 자치단체장을 거쳐 제출

문의 시 예산담당관실 ☎440-2243



경인아라뱃길 푸드트럭 운영사업자 3차 모집

K-water 경인아라뱃길본부에서는 '아라뱃길 푸드트럭 일반존과 특화존' 3차 운영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규모 일반존 4대, 특화존 4대
사용허가 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계약연장은 불가)

- 하절기(3~10월) : 오전 10시~오후 10시 / 동절기(11~2월) : 오전 10시~오후 8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실제 입점은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후 허용

문의 K-water 경인아라뱃길본부 문화관광팀 ☎590-2252

제3회 영상왕 콘테스트 공모

시민이 프로슈머가 되어 만들어가는 시민참여형 방송 서비스, 인천N방송에서 영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주제 '자유' 혹은 '인천가치재창조'

※ 인천가치재창조 :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주제(자연, 문화, 역사, 산업, 관광 등)

공모규격 60분 이내 장르불문 영상(다수작품 출품 가능)

응모자격 제한없음(대한민국 누구나 참여, 개인 또는 팀 지원 가능)

공모기간 ~6월 26일

응모방법 www.incheonntv.com을 통해 응모

제출자료 참가신청서, 동영상 파일 각 1부

시상

- 1등(1명) : 맥북프로 레티나 15인치형(200만 원 상당)
- 2등(2명) : 캐논 DSLR 750D(번들렌즈 포함, 80만 원 상당)
- 3등(3명) : 애플 아이패드 에어2 64GB(60만 원 상당)
- 4등(5명) : 소니 SRS-BTV5 블루투스 스피커(6만 원 상당)
- 5등(15명) : LG 쿼드비트3 AKG HSS-F631 이어폰(3만 원 상당)

문의 인천N방송 ☎250-2142~3



2016년 시내버스노선조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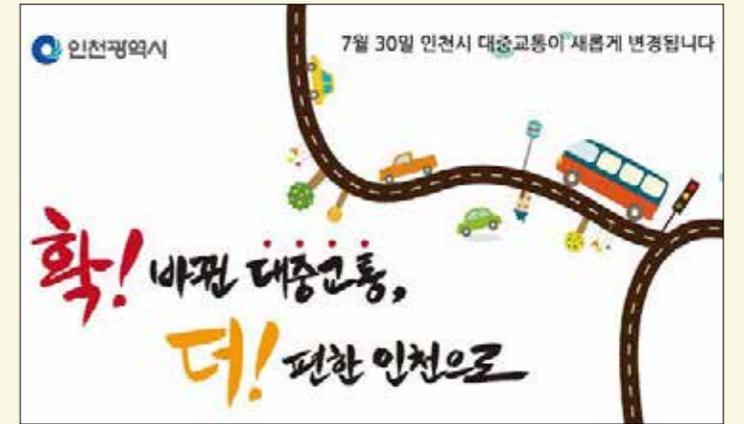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수인선 연장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버스노선 개편일 7월 30일(토) 첫차부터 노선 및 길찾기 서비스

- 6월 1일(수)부터 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조정노선 공개
- 7월 30일(토)부터 버스정보관리시스템(bus.incheon.go.kr)에서 길찾기 서비스 개시

버스 불편신고 인천시 버스정책과 ☎440-3950

버스노선 조정건의 인천시 버스노선개편추진단 ☎440-1640



'2016 청소년창작로봇교실' 2기 교육생 모집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2016 청소년창작로봇교실'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개설강좌 및 모집인원

- 청소년 창작로봇교실 로봇기초반 : 기계기초반 20명, 전자기초반 20명
- 청소년창작로봇교실 로봇중급(심화)반 : 20명 모집
- 청소년창작로봇교실 로봇고급(대회)반 : 수시모집

신청대상

- 로봇기초반
 - 기계기초 : 인천소재 초등학교 2학년~6학년
 - 전자기초 : 인천소재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인천소재 중학교 1학년~2학년
- 로봇중급(심화)반 : 인천소재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인천소재 중학교 1학년~2학년
- 로봇고급(대회)반 : 인천소재 초·중·고등학생(개인 로봇키트 지참)

※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선발

교육장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8층 교육장

교구재 및 수강료 교구재 교육생 개별구매, 수강료 무료

접수기간

- 로봇기초반 : 5월 16일(월)~6월 7일(수) 오후 6시 도착분까지
- 로봇중급반 : 5월 16일(월)~6월 20일(월) 오후 6시 도착분까지
- 로봇고급반 : 수시모집

문의 인천정보산업진흥원 ☎250-2071

'KOREA MICE EXPO 2016' 개최

대한민국 대표 MICE 전시박람회인 'KOREA MICE EXPO 2016'이 송도컨벤시아에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됩니다.

일시 6월 9일(목)~10일(금)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한국관광공사, 인니천관광공사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주요행사

- MICE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 국제회의 지원제도 및 개최설명회
- 개막식, K-MICE포럼 등

참가자

- 바이어 : 300여 명(국내 150명, 해외 150명)
- 셀러 : 250개사 400부스(1천500여 명)
- 일반참가자 : 2천700여 명

문의 마이스산업과 ☎440-1505, kme2016.kr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21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2016 환경을 부탁해 개최'

제21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2016 환경을 부탁해'가 6월 9일 인천선학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일시 6월 9일 오후 2시

장소 인천선학실내체육관

행사내용 각종 공연, 어린이 미술대회, 환경 골든벨(환경퀴즈대회), 환경관련 다양한 체험

문의 환경관리공단 ☎899-0195, 0161, 0123, www.eco-i.or.kr

제3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CGS 2016) 개최

국내외 조선산업과 해양안전, 수색구조, 수상 레저 및 통신보안 등 첨단 해양장비 전시를 통해 해양문화 활성화 및 해양산업 종사자들의 교류의 장이 될 제3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가 오는 6월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일정 6월 22일(수)~24일(금)

장소 송도컨벤시아

주최 국민안전처,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관광공사

부대행사 IWSS 2016(국제심포지엄), 해경 채용설명회, 도전 해양골든벨, 해양안전체험 등

전시아이템

- 조선관 : 조선소, 조선기자재, 특수선, 요트 및 레저보트, 공기부양정, 첨단 해양장비 등
- 항공관 : 무인항공기(모형), 헬기-육상 간 영상전송시스템 등
- 해양환경방재관 : 해양오염분석장비, 이동용 유회수기, 오일펜스, 방제복 등
- 안전·레저관 : 인명구조·수색, 스킨스쿠버 등 레저장비
- 항해통신장비관 : 위성단말기, 헬멧영상, 열화상카메라 등 최첨단 항해통신장비 등
- 특수장비관 : 대테러기술·EOD장비, 진압·보안장비, 과학수사장비 등

문의 시 마이스산업과 ☎440-1522, 1524, www.cgs-show.kr

남동소래아트홀 유료회원 가입안내

남동소래아트홀은 다양한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유료회원을 운영합니다.

정기회원·유료회원 혜택

-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최대 10~50% 할인
-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정보제공(문자 및 메일 발송)

구분	회원기간	할인기준	가입비	비고
일반회원	1년	1인 2매/공연당	1만 원	기간만료일은 도 래시점(월)의 말 일까지입니다.
가족회원		1인 4매/공연당	2만 원	

회원 가입방법 홈페이지(www.namdongarts.kr) 이용해 가입

문의 남동소래아트홀 ☎460-0560

인천 아일랜드 로드쇼 '인천 보물섬 상륙작전'

인천시는 국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 수도권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천 섬만이 가진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 홍보하는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행사명 인천 보물섬 상륙작전
(부제 : 인천 섬에서 놀자)

기간 6월 9일(목)~11일(토)

장소 서울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

주최 인천광역시, 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주관 인천관광공사, MBC, 경인일보

- 본행사 : 식전행사(기마경찰대), 축하공연, 인터뷰(시장, 군수·구청장) 및 경품 추첨 등
- 전시관 : 통합 홍보관, 섬 전시관, 수상·레저용품 전시 등
- 부대행사 : VR, 시식회 등 체험행사, 무대공연 및 이벤트 진행, 지역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 여행상담 및 판매 등

문의 시 관광진흥과 ☎440-8676



2016년 미추홀 단오 한마당(인천 원도사제)

남구는 고유 세시풍속 단오를 맞아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제2회 미추홀 단오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 6월 9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행사장소 및 내용

- (문학동)인천도호부 청사 : 공연, 체험부스운영, 팔씨름대회 등
- (용현5동)용정근린공원 : 수령 거동 퍼레이드, 원도사제 재현행사
- (문학동)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 청향패 놀이 등

문의 남구 문화예술과 ☎880-4667



생활체육프로그램 회원 모집

서부여성회관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시기 매월

모집대상 만 6세 이상 인천시민(헬스는 20세 이상)

이용기간 1개월

모집방법 인터넷 접수(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금요일 오후 6시)

※ 인터넷 접수마감 후 정원 미달 시 추가 방문접수 가능

프로그램 강습수영(성인반/여성미시반/아동반), 자유수영(월회원/1일입장), 수영·워킹·조깅, 아쿠아로빅, 재활 아쿠아, 헬스

문의 서부여성회관 ☎458-7388~9, wiv.incheon.go.kr

생활문화동호회 축제 '연수 문화너나들이'

연수문화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 향유를 위해 우리 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연수문화너나들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일시 6월 25일(토) 오후 2~6시

장소 연수문화원 야외주차장

내용 밴드공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예술플리마켓

문의 연수문화원 ☎821-6229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종그린문화축제

경제자유구역청은 친환경 녹색 축제인 '영종그린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일시 6월 4일(토)~5일(일)

※ 개막식 : 6월 4일(토) 오후 2시 30분~3시, 씨사이드파크

장소 영종일원(씨사이드 파크 및 남측유수지)

참여인원 3만여 명

주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관 경기일보

주요행사 디기요트대회, 그린라이딩캠페인, 공연(공개방송-경인방송)

문의 ☎567-4075

유물 구입합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지속적인 소장 유물을 확충하기 위해 '2016년 유물 구입'을 실시합니다

구입대상 유물 인천 근대 공예품, 산업품, 인천 도시사 자료, 특별전 관련 자료

참가자격 개인소장가(중중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일정

내용	일정
매도신청접수	6월 7~13일
유물접수	7월 13~15일
평가결과 통보 및 매매협의	8월 초순
매도계약 및 유물반환	8월 중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입유물선정 및 가격평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평가심의회의 심의·평가에 의함

문의 인천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440-6742

월미공원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서부공원사업소는 일일 농부가 되어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일시 6월 4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장소 월미공원 한국전통정원 농경체험장

행사내용

• '손'모내기 체험 : 친환경 농법 및 쌀의 생산과정 배우기, 모내기소리 배우기, 손으로 모심기, 우렁이 방사(모 활착 후, 친환경 제초 작업)

• 들녘먹거리 : 새참먹기(비빔밥,인절미), 가마솥 밥 짓기(누룽지,송농)

• 들놀이 : 풍년기원 농악놀이(두레굿 길놀이, 열두발 상모놀이)

※ 주말체험행사(먹거리 : 꽃산병, 오미자차)와 연계하여 진행

준비물 모내기 체험 후 씻고 갈아입을 옷 등(여벌옷, 양말, 수건 등)

※ 모내기 체험시(눈에 들어갈 때) 반드시 양말 착용

참여방법 당일 행사장 방문(선착순)으로 참여가능(무료)

문의 서부공원사업소 ☎440-5923

시티투어가 확 바뀌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인천시티투어가 순환형 방식으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편리한 시티투어와 함께 행복한 하루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운영일시 6월 1일 오전 9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무)

※ 배차간격 1시간, 막차 17:00시 출발(센트럴파크/인천역)

이용요금

중·고생 이상~일반	만 36개월~초등학생	장애인,국가유공자, 65세이상
5,000원	3,000원	3,000원

티켓구입 인천역관광안내소(매표소) 및 센트럴파크 정류장

이용방법 티켓 한장(1인 1매) 구매로 모든 정류장에서 하루종일 자유롭게 이용 가능

운행노선 송도-월미개항장 코스

문의 772-4000, www.travelicn.or.kr



문화가 있는 날, '2016 연수 프린지 페스티벌'

연수문화원에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다양하고 색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2016 연수 프린지 페스티벌' 거리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	장소	공연팀	장르
6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연수2동 솔안공원	COZ (코즈)	크로스오버 재즈
8월 31일(수) 오후 7시 30분	동춘동 동막공원	나무 챔버	시네마 클래식
9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동춘동 동막공원	유희 컴퍼니	전통연희

문의 연수문화원 ☎821-6229



제78회 인천향토사강좌 개최

인천역사자료관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제78회 인천향토사강좌'를 개최합니다.

일시 6월 13일(월) 오후 2시~5시 10분

장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사랑방 (40석 내외)

주제 및 강사

• 스토리텔링으로 보는 인천의 설화(오후 2시~오후 3시 30분)

- 남동걸 :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위원

• 문화경영으로 보는 인천(오후 3시 40분~5시 10분)

- 김상원 : 인하대 문화경영학과 교수

수강방법 사전 전화예약

문의 역사자료관 ☎440-8382~3

나눔과 배려를 배우는

'전통문화예절학교'

연수문화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절학교를 개최합니다.

대상 초등학생 1학년~중학생 3학년

날짜 6월 4일(토), 18일(토), 7월 2일(토) 중 선택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원인재(문화재자료 제5호, 원인재역 1번 출구 50m)

참가비 무료

접수기간 선착순 마감(방문 및 전화 접수)

문의 연수문화원 ☎821-6229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송도 석산 사이니지 디자인 공모전

인천시는 송도 석산 사이니지(Signage)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공모내용 인천의 정체성 또는 비전을 잘 표현하고 시
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1차 절개지내
주·야간 사이니지(Signage) 디자인

응모자격 인천 소재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접수기간 7월 1일(금)~8일(금) 오후 6시

시상내역

대상(1명)	금상(1명)	은상(2명)	동상(5명)
상장과 상금 300만 원	상장과 상금 150만 원	상장과 상금 각 50만 원	상장과 상금 각 30만 원

주최·주관/후원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인천관광공사
문의 시 도시경관과 ☎440-4785



신나고 재미있는 '우리 동네 숲 탐험'

연수문화원은 숲 해설가와 함께 청량산의 숲
을 탐험하며 자연과 생태를 체험하는 프로그
램 '우리 동네 숲 탐험'이 매월 첫째 주 토요
일에 진행합니다.

일시 6월 4일(토) 오전 10~12시(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내용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청량산 생태 환경 체험

대상 7~10세 어린이

출발 연수구 청학동 청량산교회 뒤 공터

회비 1만 원(1인, 1일)

접수 연수문화원 방문 접수

문의 연수문화원 ☎821-6229,

www.yeonsu.or.kr

행복나눔 프리마켓 운영

우리는 (사)인천광역시여
성단체협의회와 함께 2016
년 행복나눔 프리마켓을 운
영합니다.

일시 6월 4일 오전 11시~오
후 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참여 여성단체, 시민, 기업 등

주요내용 나눔장터, 체험(참여)장터, 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 명사애상품 판매, 먹거리, 시민
가족장터 등

개인(가족)참가자신청 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www.inwomen.or.kr

문의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865-8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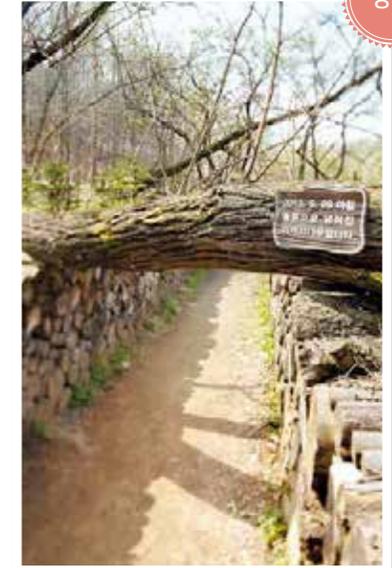


6월 주제는 숲 인천 사는 이야기



숲 속의 공주님

아직 수풀이 우거지기 전, 숲을 배경으로
개나리가 세상을 노랑게 물들였습니다. 그
앞에서 '분홍공주님'은 꽃보다 더 예쁘게
활짝 웃고 있는데요. **이은정** 남동구 소재역로



장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주는 나무

인천대공원 유아숲에 가면 2013년 9월에 돌풍으로 넘어진 나무가 있습
니다. 다시 바로 세우지 않고 쓰러진 모습 그대로 놓았는데,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그 아래를 지나가곤 합니다. 자연은 살아서도 뿌리가 뻗혀
서도 우리의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김동휘** 서울시 성북구



숲에 둘러싸인 인천대공원에서

인천대공원에는 자연이 살아 숨 쉽니다.
관모산과 상아산이 둘러쳐져 있고, 전체
면적 가운데 무려 80%가 숲입니다. 그 안
에선 나무와 함께 동심도 무럭무럭 자라납
니다. **유지연** 남동구 소재역로



아늑했던 숲은 어디로

35년 전 온 식구가 인천요양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때는 나지막해
아늑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원만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네
요. 그 숲은 어디로 갔을까요?
임세라 연수구 새말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다음 달 주제는 '축제'입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타인에 대한 시선

글 김민재(웹툰 작가)



작가로서 새로운 작품을 대할 때마다 시선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다.

웹툰 '동재네 식구들이란' 작품이 '나라는 우물에 갇혀 꼼짝 않던 나의 갇힌 시선을 우물 밖으로 꺼내 준 작품이었다. 어떠한 작품이 세상에 나올 때, 이는 작가 스스로가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거나, 작가의 자아실현을 위함이다. 물론 기본적인 생계유지라는 이유도 있고, 이런 저런 목적이 섞여있기도 할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나의 자아실현이 작품을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 작품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만족과 희열을 느꼈다. 그러다 보니, 작품에서 중요시되었던 것은 다른 작품보다 더 눈에 띄어야 하고, 더 재미있어야 하며, 많은 사람이 봐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동재네 식구들이란' 작품을 하기 전까지는,

이 작품은, 여러 인터뷰나 작품 말미에 독자들에게도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나라는 우물'에서 '나'를 건져내준 작품이기에 그렇다.

동재네 식구들의 이야기 구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동재'라는 인물의 주변 사람들에 관한 이

이야기이다. 그중에는 이 땅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지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

평소 내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이 땅의 이방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그리게 되었다. 대중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분명 대중의 환영을 받을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들을 통해 내 마음은 그들에게,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가 있었다. 발품을 팔아가며,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며, 이런저런 고민을 해가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연재를 진행했고, 무사히 마쳤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독자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전해주었다. 실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찌 보면 이방인이고, 나그네이다.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나그네에 대한 언급과 배려를 기록해 놓았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들이다. 스스로 나그네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처지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하는 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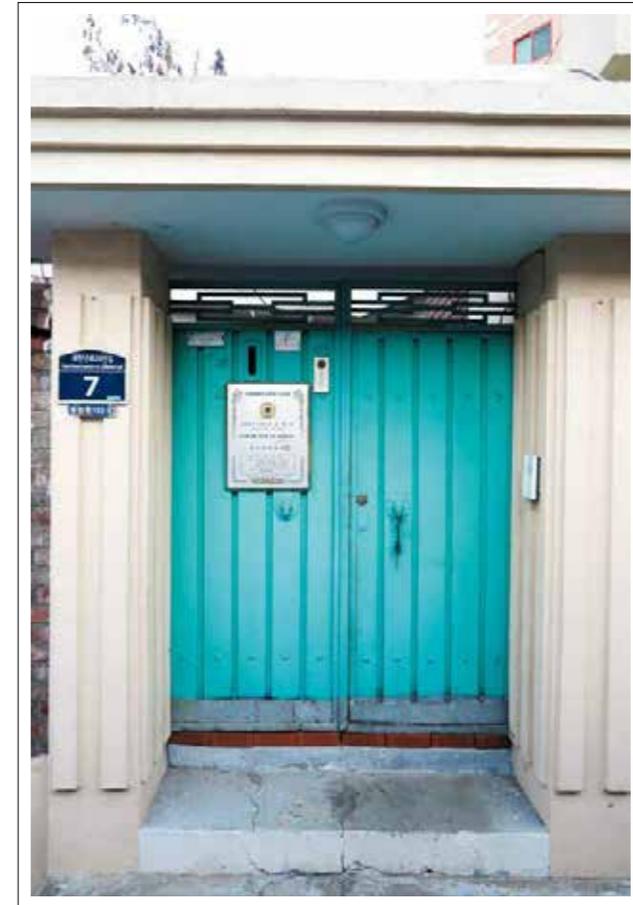
누군가 나를 챙기기에다 버겁다 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또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이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가 좀 더 가뽀해지지 않을까?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잠언 8:11 - 솔로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것도 손에 잡히는 실물은 아니다. 자신이 획득한 실물로 인해 삶의 질은 나아지겠지만, 행복의 수치는 이에 따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기준을 잡고 살기가 참 만만치 않다.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진다면, 지혜는 우리의 삶에 좋은 스승과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나라를 구한 집

목숨 내놓고 전장(戰場)에 나선 일보다 더 큰 애국이 있을까요.

이 집 대문에 '6·25 참전 국가유공자' 상패가 붙어 있습니다.

제 자랑 하기보다 국가에 대한 헌신을 일깨우기 위해 걸어 놓은 듯합니다.

큰 행운을 얻은 이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승에서 나라를 구한 이 집 주인은 다음 세상에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 동구 송림동에서



글 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